

『BK21 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인문학분야) 사업단 성과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21B20130000015						
사업분야	인문학	신청분야	역사/철학/종교	단위	지역	구분	사업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철학	철학일반				
	비율(%)	100%					
학과(학부) 또는 협동과정명	전남대학교 철학과					학과개설일	195203
사업단명	국문)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						
	영문) The Philosophical Education Project towards Transverse Thinking						
사업단장	소 속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노양진	전화		062-530-3227	
				팩스			
		영문	Noh Yang Jin	이동전화		011-632-1303	
				E-mail		yjnoh@chonnam.ac.kr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13.9~'14.2)		2차년도 ('14.3~'15.2)		3차년도 ('15.3~'16.2)	
	국고지원금	231		463		463	
총 사업기간		2013.9.1. ~ 2020.8.31.(84개월)					
성과평가 대상 사업기간		2013.9.1. ~ 2015.8.31.(24개월)					

본인은 『BK21 플러스』 성과평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

2015년 09월 17일

작성자	사업단장	노양진 (인)
확인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확인자	전남대학교 총장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학문성	학제성	국제성
	학문 횡단	이론-실천 횡단	자생적 한국철학 모형
	인문복지	횡단형 창의 인재	철학전문인력 양성
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	○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횡단, 철학과 타학문의 횡단을 통해 자생적 한국철학의 모형을 모색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상호주관적 인문정신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적 소외와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문복지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 ○ 횡단적 사유를 통해 창의적인 학문적 시각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철학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사업 목표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학제적 소통을 통해 창의적 학문성을 갖추고, 사회적 실천의 과정에서 인문복지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철학전문인력양성 대학원으로 특성화한다. ○ 횡단형 철학연구 인재 양성: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철학과 타학문을 횡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BK21 2단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인문복지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한국의 고유한 철학적 가치를 보편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생적인 한국철학의 새로운 사유 모형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역량 영역	○ 목표: 학문성, 학제성, 국제성을 갖춘 30명 이상의 철학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사업단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규·비정규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교육을 시행한다. - 학문 횡단형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수립하며, 그 수행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 이론-실천 횡단형 연구와 실천을 위한 교과과정을 신설하며, 그 수행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 국제화 교육체계 확립: 외국인 교수나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석학 초청이나 대학원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연구역량 영역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 학문 횡단 연구팀과 이론-실천 횡단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 활동비를 지원한다. ○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과 저서 출간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학제적 탐구와 인문복지 관련 학술대회를 관련 기관이나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 목표 실적을 상회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인문복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학술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적 교류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논문발표를 위한 3단계 자율 계획을 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별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선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기대효과	○ 학제적 소통을 토대로 인문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할 연구중심지역거점 대학원의 모형을 창출한다. ○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철학과 타학문, 학술적 이론과 사회적 실천을 횡단하는 창의		

	적 인재 양성의 모형을 제시한다. ○ 학문성, 학제성, 국제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미래 지향적 인문복지를 실현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 ○ 보편적 가치의 지역화와 지역적 가치의 세계화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철학 교육과 연구 모형을 구축한다. ○ 인문학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인문화, 인문의 지역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

I 사업단 현황

1 사업단 구성

1.1 사업단장

성명	한글	노양진	영문	Noh Yang Jin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1>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전체 참여 교수 현황 (단위: 명)

산정 기간	소속 대학원 학과(부)	환산 참여 교수 수		
		전임	겸임	계
‘13.9.1~ ‘15.8.31	철학과	9.7499	-	9.75

<표 1-2> 사업단 전체 참여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산정 기간	대학원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계
‘13.9.1~ ‘15.8.31	철학과	14	26.5	40.5

II 부문별

<교육역량 영역>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교육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횡단적 사유(학문 횡단 및 이론-실천 횡단)와 소통을 통해 창의적 학문성을 갖추고, 미래지향적 인문복지의 모형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철학전문인력 양성 대학원으로 특성화하는 것이다. 이에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이 전문적이고 학제적인 소통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횡단형 창의인재 양성에 적합한 인적 구성과 연구역량을 축적했고, 학문성·학제성·국제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 동안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구성과 연구역량

(1) 횡단형 교육을 위한 인적 구성의 적절성

○ 사업단 참여교수는 총 10인이며, 동양철학 전공자 4인, 서양철학 전공자 6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 동양철학 전공자(4인): 최대우(한국철학), 이종표(인도철학), 조운호(동아시아불교), 양순자(중국철학)
- 서양철학 전공자(6인): 노양진(영미철학), 김상봉(2013.09.01-2015.02.28)/원승룡(2015.03.01 이후 참여), 김양현, 정미라, 박구용(독일철학), Kim Su Rasmussen(프랑스철학)

○ 사업단의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전공자 인적 구성은 횡단형 교육을 위한 적절한 비율을 갖췄으며, 참여교수진이 한국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동아시아불교, 독일철학, 프랑스철학, 영미철학 등 다양한 지역과 정치철학, 사회철학, 심리철학, 미학, 언어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횡단형 교육을 위한 연구팀 구성 및 운영 실적

○ 사업단은 횡단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문 횡단 연구팀과 이론-실천 횡단 연구팀을 구성, 운영했다.

- 학문 횡단 연구팀: 자생적 한국철학의 모형 탐색을 위한 연구팀으로, 동서철학 횡단형과 철학-타학문 횡단형으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자생적 한국철학의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 이론-실천 횡단 연구팀: 미래기반 인문복지 모형과 연관된 핵심 영역을 선정하여 탐구하는 연구팀으로, 한국적 복지 모형에 맞는 철학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 최근 2년간 연구팀별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학문 횡단 연구팀: 트랙별 학문 횡단형 교과운영, 2과목
<철학적 횡단세미나>, 1회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 1회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6회
 <전문가 초청강연회>, 6회
 <논문작성법 워크숍>, 4회(학기당 1회)
 <철학과 대학원세미나> 지원, 4회(학기당 1회)
 <대학원생 독회> 지원, 22개 팀
 <대학원생 학술토론회> 지원, 6회

- 이론-실천 횡단 연구팀: 트랙별 이론-실천 횡단형 교과운영, 2과목
 - <이론-실천 횡단 워크숍>, 4회(학기당 1회)
 - <청소년 철학교실> 참여, 3인(참여대학원생)
 - <시민인문강좌> 참여, 3인(참여교수 1인, 신진연구인력 2인)
 - <아세교육협동조합> 참여, 2인(참여교수)
 - <광주젠더포럼> 참여, 2인(참여교수 1인, 신진연구인력 1인)
 - <인문도시> 사업 참여, 3인(참여교수 1인, 신진연구인력 2인)
 - <시민자유대학> 설립 참여, 3인(참여교수 2인, 신진연구인력 1인)
 - <희망어린이인문학>및<병원인문학>참여, 1인(신진연구인력)

(3) 횡단형 교육에 적합한 연구역량의 축적

- 참여교수 연구 실적: 국제학술지논문(A&HCI) 1편
 국내학술지논문 30.5편
 저서 및 역서 11권
 국제학술대회 발표 8회
 국내학술대회 발표 12회

- 신진연구인력 연구 실적: 국내학술지논문 17.5편
 저서 및 역서 2권
 국내학술대회 발표 6회

-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국내학술지논문 21편
 국제학술대회 발표 7회
 국내학술대회 발표 10회

○ 횡단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성과 학제성, 국제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교육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단의 참여구성원들은 사업 초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에 있어서 참여교수 90%, 신진연구인력 125%, 참여대학원생 100%로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거나 연구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연구와 학술활동 분야에서 횡단형 교육에 적합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국제적 연구역량의 성장도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구성원들이 학술지 게재논문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역량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

2) 학문성 · 학제성 · 국제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1) 횡단형 교과목 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사업단은 횡단형 특성화 교과과정을 3단계로 구별하여 전문화하고, 실습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등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 체계구축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횡단형 교과과정의 3단계 구성

- 석사과정: 공통필수(3학점), 공통선택(6학점), 심화선택(6학점)
- 박사과정: 공통필수(3학점), 공통선택(6학점), 심화선택(12학점)

○ 추가이수학점 구성 및 운영

-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은 횡단형논문연구&연구윤리 3학점, 의사소통&펠로우쉽 3학점, 트랙별 선택필수 6학점을 합하여 추가로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 횡단형논문연구&연구윤리 과목 신설 및 운영

- 횡단형논문연구&연구윤리 과목을 횡단형 공통필수 과목으로 신설, 운영함으로써 연구논문 작성 및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다.

○ 의사소통&펠로우쉽 과목 신설 및 운영

-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국내외어학연수&펠로우쉽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 트랙별 선택필수 교과목의 구성 및 운영

횡단형 선택필수 교과목을 2트랙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했다.

- 학문 횡단형 트랙(12과목): 철학-타학문 횡단형 5과목, 동서철학 횡단형 7과목 중 2과목(사회·정치와철학, 문화·예술과철학)을 운영했다.
- 이론-실천 횡단형 트랙(13과목): 이론 중심 인문복지 6과목, 실습 중심 인문복지 7과목 중 2과목(청소년철학교육Ⅱ, 이론과실천)을 운영했다.
- 2015년 2학기 4과목(동서가치와 윤리학, 동서자연철학, 경제·경영과철학, 언어·소통과철학)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2) 횡단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노력 및 실적

□ 학문 횡단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및 실적

○ <철학적 횡단세미나 2015> ‘몸과 인지’ 개최

- 학문(철학-타학문) 횡단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15년 5월 1일 ‘몸과 인지’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다양한 분야(언어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법학, 의학, 윤리학, 음악, 영화) 8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철학적 횡단세미나>를 개최했다.

- <철학적 횡단세미나>의 결과물을 2015년 8월 28일 『몸과 인지』라는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사업단 활동의 학술적 공유에 기여했고, 향후 <철학적 횡단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성과를 총서 시리즈로 출판할 계획이다.

○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 개최

- 2015년 2월 20일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갈등과 화해, 주체와 타자, 보편과 다원」이라는 주제로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심포지엄에서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6명과 동경대 대학원생 6명은 동양과 서양철학 분야에서 각각 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학문 횡단형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했다.

○ <해외석학초청강연회> 개최

- 2013년 1인, 2014년 3인, 2015년 2인 등 학문 횡단형 전문연구자로 평가받는 총 6인(중국, 일본, 독일)의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 해외석학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학제적 전망, 유가윤리의 세계화를 통한 동양과 서양의 소통 모색, 인지언어학과의 학제적 연구에 토대를 둔 조망과 관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철학과 타학문과의 횡

단적 연구의 선진적 모델을 제안했다. 강연 후 해외석학들과의 토론을 통해 참여구성원들은 선진적인 횡단형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최근 2년간 학문 횡단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6회의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 동서양 철학 분야의 선진적인 횡단형 연구로 주목받는 동양철학 2인, 서양철학 4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분야의 횡단형 연구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었고, 이를 참여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학문 횡단형 연구역량을 강화했다.

○ <논문 작성법 워크숍> 개최

- 최근 2년간 대학원생들의 원활한 논문지도를 위해 4회(학기당 1회)의 <논문 작성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 대학원생들이 논문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논문 작성의 기초,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학술정보 활용 및 참고문헌 작성법 등 논문 작성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했다.

○ <철학과 대학원세미나> 지원

- 최근 2년간 4회의 <철학과 대학원세미나>를 지원했다.
- <철학과 대학원세미나>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와 논문예비발표를 위한 모임이다. 대학원세미나는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사업단은 대학원세미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횡단형 학위논문 발표를 장려하고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대학원생 독회> 지원

- 최근 2년간 22개 팀(서양철학 15팀, 동양철학 7팀)의 <대학원생 독회>를 지원했다.
-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독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들의 자율적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장려했다. 그 성과는 학문 횡단적 연구 및 학술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 <대학원생 학술토론회> 지원

- 최근 2년간 총 6회의 <대학원생 학술토론회>를 지원했다.
- 사업단은 서로 다른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횡단적 사고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문 횡단적 사고에 기반을 둔 대학원생들의 자율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했다.

□ 이론-실천 횡단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및 실적

사업단은 BK 2단계 사업을 토대로 지난 2년간 철학이론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철학교실 운영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사업단은 이론-실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를 위한 철학교육활동을 수행했다. 철학교육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인문복지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철학교육활동은 이론-실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의 중요한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론-실천 횡단 워크숍> 개최

- 최근 2년간 대학원생들의 이론-실천 횡단적인 사고를 강화하기 위해 4회(학기당 1회)의 <이론실천 횡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 <청소년 철학교실> 참여

- 이론-실천횡단형철학전문인력으로 배출된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재학생과 수료생들은 <청소년 철학교실>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복지 활동을 수행해 왔다.
- 최근 2년간 <청소년 철학교실>은 109회, <철학교실캠프> 외부강의는 9개 학교에서 수행했고, 그 중 박의연 외 2인의 참여대학원생이 <청소년 철학교실>의 강사로 참여했다.

○ <시민인문강좌> 참여

- 사업단의 참여교수(박구용), 신진연구인력(김현, 류근성)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 광산구청,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시민인문강좌>(16개 강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시민인문강좌>의 ‘빛피 인문학’ 사업은 인문학 관련 종사자들의 소통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문 담론의 중심점을 형성하고, 지역 인문 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여 인문학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 <아세교육협동조합> 참여

- 사업단의 참여교수(이중표, 조운호)가 중심이 되어 2014년 설립한 <아세교육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 동구를 근거지로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 강화와 미래 인문복지의 확산을 위해 시민인문학 강좌, 마인드 힐링, 자연음식 만들기 등을 개설, 운영했다.

○ <광주젠더포럼> 참여

- 사업단의 참여교수(정미라)와 신진연구인력(김현)은 2014년 광주여성재단,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광주젠더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광주젠더포럼> 사업은 성매매 여성, 미혼모 등 소외계층여성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18개 강좌) 및 여성 활동가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인문학 강좌를 통해 여성들 간의 계층 격차를 해소하여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지역 여성 활동가들과 함께 교육, 보육복지의 실천방안들을 논의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환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 <인문도시> 사업 참여

- 사업단의 참여교수(박구용)와 신진연구인력(김현, 류근성)은 2014년 한국연구재단,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산구청,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인문도시’ 사업(27개 강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인문도시> 사업은 사회적 마이너리티 계층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강좌를 확대하여 인문학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시민자유대학> 설립 참여

- 사업단의 참여교수(박구용, 조운호)와 신진연구인력(류근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협조하여 2015년 <시민자유대학>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시민자유대학>은 광주시민의 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이론-실천 횡단형 철학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 <희망어린이인문학> 및 <병원인문학> 참여

-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이향준)은 삼성그룹 사회봉사단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희망어린이인문학>(지역 아동센터 30개소) 및 <병원인문학> 교육 프로그램(8개 강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희망어린이인문학>은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인성, 감성, 지성 개발에, <병원인문학>은 환우들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가족 간의 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원활한 사회적 소통기능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 국제적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및 실적

○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 최근 2년간 4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 백송이(박사과정, 1년, 독일 훔볼트대학교)
- 정화영(박사과정, 1년,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 카본데일)
- 박의연(박사과정, 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 전하나(석사과정, 1년,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 대학원생 해외연수는 2014년 전반기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수학생들

은 연수지역에서의 담당교수와의 면담, 수업참여, 콜로키움 및 세미나 참석, 현지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석 등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 외국어강좌 운영

최근 2년간 총 17과목의 외국어강좌를 개설, 운영했다.

- 2013년 2학기(1과목): 미학연구(영어)
- 2014년 1학기(2과목): 천태화엄사상연구(영어)
문화예술철학특강(영어)
- 2014년 2학기(7과목): 공맹철학연구(중국어)
담론이론연구(독일어)
동서윤리학특강(영어)
동아시아불교연구(일본어)
사회·정치와철학(독일어)
이론과실천(영어)
현대유럽철학연구(영어)
- 2015년 1학기(7과목): 동서철학연구방법론비교(영어)
동양근현대철학연구(중국어)
정치철학연구(독일어)
한국유도불교섭사연습(일본어)
헤겔철학연구(독일어)
문화·예술과철학(영어)
해석학연구(영어)

○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 개최

-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2월 20일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갈등과 화해, 주체와 타자, 보편과 다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6명과 동경대 대학원생 6명이 각각 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국제적 학술교류활동을 강화했다.

○ <울곡국제학술대회> 참석

- 참여대학원생인 정상엽은 2014년 10월 3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울곡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 「정약용의 사려 중심의 미발 해석」을 발표했다.
- 「동아시아 주자학과 율곡학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울곡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프랑스의 학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각도에서 주자학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정상엽은 발표 및 주자와 율곡의 관계 등 율곡학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학술교류와 횡단형 연구역량을 강화했다.

○ <해외석학초청강연회>개최

- 2013년 1인, 2014년 3인, 2015년 2인 등 국제적으로 횡단형 연구자로 평가받는 6인(중국, 일본, 독일)의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 해외석학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학제적 전망, 유가윤리의 세계화를 통한 동양과 서양의 소통 모색, 인지언어학과의 학제적 연구에 토대를 둔 조망과 관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주목하면서 사업단 참여구성원들의 횡단적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① 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실적

1) 교과과정 체계구축 내용 및 운영 실적

본 사업단은 횡단형 특성화 교과과정을 3단계로 구별하여 전문화하고, 실습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등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설, 운영했다. 횡단형 교과과정 체계구축 및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횡단형 교과과정의 구성 방향

□ 횡단형 특성화 교과과정 구성

○ 횡단형 교과과정을 3단계로 구별하여 전문화했다.

- 석사과정: 공통필수(3학점), 공통선택(6학점), 심화선택(6학점)

- 박사과정: 공통필수(3학점), 공통선택(6학점), 심화선택(12학점)

□ 졸업이수학점 체계 현황 및 운영

○ 석사과정 학생은 일반심화선택에서 9학점, 공통필수에서 3학점, 공통선택에서 6학점, 심화선택에서 6학점을 합하여 총 24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 박사과정 학생은 일반심화선택에서 15학점, 공통필수에서 3학점, 공통선택에서 6학점, 심화선택에서 12학점을 합하여 총 36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들은 횡단형 논문연구&연구윤리 3학점, 의사소통&펠로우쉽 3학점, 트랙별 선택필수 6학점을 합하여 추가로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 실습교육체계의 구성 및 운영

○ 횡단형 전문인력의 기초인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을 강화했다.

○ 관련 기관과의 국내외 협약체결을 통해 실습 및 인턴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 현재 <지혜학교>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및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2) 개설 교과목 세부 내용

○ 전체 교과목은 총 120과목, 360학점으로 구성했다.

○ 교과목은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교과목을 재구성했다.

- 횡단형 공통필수 2과목

- 횡단형 공통선택 21과목

- 횡단형 심화선택 30과목

- 일반심화선택 40과목

- 횡단형 논문연구&연구윤리 2과목

- 횡단형 트랙별 선택필수 25과목
- 의사소통&펠로우쉽 1과목(국내외 관련기관에서의 이수 및 연수 학점 인정)

□ 횡단형 공통필수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횡단형 논문연구&연구윤리I(석사), 횡단형 논문연구&연구윤리II(박사)과목을 횡단형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 운영했다.

□ 횡단형 공통선택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횡단형 공통선택 21과목을 개설했다.

○ 횡단형 공통선택 교과목(21과목): 언어철학연구 문화철학연구
 예술철학연구 사회철학연구
 정치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심리철학연구 경제철학연구
 교육철학연구 동서사상교류연구
 의사소통과철학교육 논리와소통
 학제적철학연구방법론 동서철학연구방법론
 비교동서형이상학교전강독 동서법철학교전연구
 복지사회와철학연구 인문복지패러다임연구
 글로벌소통과연대 글로벌문화와인권
 현대사회의변화와복지패러다임연구

○ 횡단형 공통선택 21과목 중에서 최근 2년간 5과목(예술철학연구, 정치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방법론비교, 학제적철학연구방법론, 동서형이상학교전강독)을 운영했다.

□ 횡단형 심화선택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횡단형 심화선택 30과목을 개설했다.

○ 횡단형 심화선택 교과목(30과목, 외국어강좌)

동서철학비교연습	한국현대사상연구	정보윤리학연습
문화철학교육연습	사회철학교육연습	예술철학교육연습
현대법철학연구	인지과학연구	한국유도불교섭사연습
응용윤리학연습	생명의료윤리학연습	역사철학교육연습
언어철학교육연습	과학철학교육연습	예술철학특강
동서형이상학특강 I	동서형이상학특강 II	동서자연철학특강
동서논리개발연구	동서윤리학특강	동서역사철학특강
동서현대철학특강 I	동서현대철학특강 II	복지패러다임과철학
인문복지와정체성특강	인문복지를위한철학교육특강	글로벌인문학특강 I
글로벌인문학특강 II	세계상호문화철학교전연구 I	세계상호문화철학교전연구 II

○ 횡단형 심화선택 30과목 중에서 최근 2년간 5과목(동서현대철학특강, 문화예술철학특강, 복지패러다임과철학, 한국유도불교섭사연습)을 운영했다.

□ 트랙별 선택필수 교과목의 구성 및 운영 실적

○ 트랙별 선택필수 교과목을 2트랙으로 구성했고,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6학점으로 했다.

○ 학문 횡단형 트랙은 자생적 한국철학의 모형을 찾기 위한 전문화과정으로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철학과 타학문을 가로지르는 교

- 철학·타학문 횡단형(5과목):	과학·기술과철학 문화·예술과철학 경제·경영과철학	사회·정치와철학 언어·소통과철학
- 동서철학 횡단형(7과목):	동서형이상학 동서가치와윤리학 동서예술과미학 지역고전문헌번역과해석Ⅱ	동서자연철학 동서사회제도와법철학 지역고전문헌번역과해석Ⅰ

- 이론 중심 인문복지(6과목):	이론과실천 사회적소외와연대 인문복지의이론과실천	인권과복지 사회복지와인문복지 세계상호문화철학
- 실습 중심 인문복지(7과목):	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 I 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Ⅲ 청소년철학교육Ⅱ 시민철학아카데미Ⅱ	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Ⅱ 청소년철학교육 I 시민철학아카데미 I

2) 다차원적 강의평가 및 환류 시스템

○ 사업단에서는 현행 강의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법 관련 워크숍을 매학기 종료 후 개최함으로써 실제적인 강의방법의 질적 개선 효과를 유도했다.

(1) 논문 작성법 정규 교육

- 석사과정: 횡단형논문연구&연구윤리 I (3학점)
- 박사과정: 횡단형논문연구&연구윤리 II (3학점)

○ 석사과정에서는 연구주제 발굴, 논문 연구과정, 논문 작성과정, 논문 심사 및 수정과정으로 단계별 심화교육을 실시했고, 박사과정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교육과 더불어 국제학술지 투고, 심사, 게재과정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이 강화되었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제학술지 투고 등 전반적인 국제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논문 작성법 비정규 교육

○ 철학과 대학원세미나

- 철학과 대학원세미나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의 논문예비발표를 위한 모임이다. 사업단에서는 꾸준히 대학원세미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 학위논문 발표를 장려하고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대학원세미나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겨울, 철학과 대학원세미나

- 일시: 2014.02.26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호
- 발표자: 전경진(박사), 「니체와 도덕의 전환: 니체 도덕철학의 자연주의적 재구성」
조배균(박사), 「법장 화엄사상 연구-법상유식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김진이(석사), 「근본불교의 업설-업상응품을 중심으로」
정현주(석사), 「중변분별론에서 실재와 언어적 이해의 문제 연구」
임병환(석사), 「유식 삼성설」
유성은(석사), 「자기의식과 생명: 헤겔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을 중심으로」
이한나(석사), 「데카르트의 진리 개념」

- 2014년 여름, 철학과 대학원세미나

- 일시: 2014.08.29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호
- 발표자: 주선희(박사), 「듀이의 자연주의 윤리학」
김용재(석사), 「판단의 선험적 조건으로서의 반성 개념」
남미순(석사),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문제」
강정민(석사), 「계몽정신의 야만성과 동일성 사고 비판」

- 2015년 겨울, 철학과 대학원세미나

- 일시: 2015.02.27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호
- 발표자: 양진호(박사), 「스피노자의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에서 「신의 관념」 연구」
탁양현(박사), 「노자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 무위와 현위를 중심으로」
박민현(박사), 「『미륵 상생경찬』으로 살펴본 규기의 미륵사상 이해」
안현석(석사), 「칸트의 최고선 문제」
이유미(석사), 「바이세에의 「추」」

- 2015년 여름, 철학과 대학원세미나

- 일시: 2015.08.28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호
- 발표자: 민병재(석사), 「훗설의 현상학적 신체론: 구성된 신체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영역」
김혜영(석사), 「체험주의의상상력이론: 신체화된 경험의 상상적 구조」

○ 논문 작성법 워크숍

- 대학원생들이 논문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논문 작성법 워크숍을 매 학기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 논문 작성법 워크숍을 통해 논문 작성의 기초,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학술정보 활용 및 참고문헌 작성법 등 논문 작성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했다.

○ 대학원생 학술논문 멘토링 프로그램

- 대학원생들의 학위 취득을 독려하고 학술지 게재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작성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사급 연구원을 멘토로 활용하여 전공지식 및 글쓰기 등을 지도하는 멘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학위논문 작성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논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상시적인 논문지도 체계의 수립 및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 실적

(1)<철학적 횡단세미나 2015> ‘몸과 인지’ 개최

○ 2015년 5월 1일 다양한 학문분야 총 8명의 발표자(김동환, 이영의, 이향준, 강태경, 강신익, 박병기, 정혜윤, 이상옥)가 참여하는 <철학적 횡단세미나>를 개최했다.

○ 각각의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 김동환(해군사관학교 교수), 「인지언어학적 탐구의 가능성」
- 이영의(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교수), 「체화 개념의 지도 그리기」
- 이향준(전남대학교 철학과 BK21 플러스 연구교수), 「도(道)를 아십니까?」
- 강태경(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센터 박사후연구원), 「법과 인지」
- 강신익(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체화된 인지와 몸의 분류」
- 박병기(한국고원대학교 교수), 「몸의 습관화와 도덕교육」
- 정혜윤(명지대학교 교수), 「음악적 제스처의 체험적 토대에 관한 인지학적 해명」
- 이상옥(부산대학교 강사), 「왜 고양이와 개는 우리와 영화를 보지 않을까?」

○ 사업단은 <철학적 횡단세미나> ‘몸과 인지’를 통해 ‘신체화된 인지’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학문적 탐구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고,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철학적 횡단세미나> ‘몸과 인지’는 철학과 타학문을 가로지르는 횡단적 사유를 지향하는 최적화된 횡단형 프로그램으로, 최근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인지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적 탐구의 실재를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횡단형 연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철학적 횡단세미나>의 결과물이 2015년 8월 28일 『몸과 인지』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됨으로써 사업단 활동의 학술적 공유에도 기여했다. 사업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철학적 횡단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성과를 총서 시리즈로 출판할 계획이다.

(2)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 개최

○ 2015년 2월 20일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갈등과 화해, 주체와 타자, 보편과 다원」이라는 주제로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진철학연구자들의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교육·연구역량을 증진시키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전남대 철학과와 東京大 人文社 系 23398 系 30740 室 23398 30740 室・インド哲 23398 佛 25945 23398 30740 室이 수개월 간의 협의와 준비를 거쳐 성사시켰다. 양 대학교 대학원생 각 6명이 발표에 참여했으며, 사업단 참여교수인 조운호 교수가 총괄 진행을 맡았다.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발표 현황

- 김성부(박사과정), 「연기설의 축과 듀이의 경험」
- 김용은(박사과정), 「퍼트남과 사실/가치 이분법」
- 우동필(박사과정), 「십이연기에서 자아의 구성」
- 이무영(박사과정), 「Ego cogito와 Res cogitans」
- 정소라(박사과정), 「아렌트 판단이론의 실용주의적 해석」
- 조배균(박사과정), 「법장의 화엄사상에서 다원성의 통합 방식」

○ 동경대학교 대학원생 발표 현황

- 楊潔, 「유불도 삼교간 갈등과 화해의 한 측면」
- 野道彦, 「불교 교단에 있어서의 이설의 양상」
- 中島立博, 「분할법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한정성’」
- 葛谷潤, 「이성적 주체에 대한 타자의 필요성」
- 松浦和也, 「파이노메나의 구조: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의 한 측면」
- Giglio Emanuele Davide, 「日蓮의 갈등과 화해」

○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은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향후 학술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교육·연구역량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3)<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 최근 2년간 6회의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 2014.02.18, 심철민(서울대 미학과), 「원근법과 공간묘사의 변천」
- 2014.02.18, 정세근(충북대 철학과), 「문제현실론: 철학에서 전통과 창조의 문제」
- 2014.04.17, 최영진(성균관대한국철학과), 「다산의경전주석에 나타난 정감의도덕적기능」
- 2014.09.19, 강신준(동아대 경제학과), 「오늘, 다시 읽는 마르크스의 <자본>」
- 2014.10.13, 김선희(이화여대 철학과), 「개인동일성과 개인정체성」
- 2015.01.15, 양선이(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 「흙의 도덕감정론」

○ 대학원생들의 학제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철학뿐만 아니라 타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분야의 이론적 논의들을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참여대학원생들의 횡단적 사고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했다.

(4)<청소년 철학교실> 운영

○ 최근 2년간 <청소년 철학교실>은 109회, 철학교실 외부강의는 9개 학교에서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3인(위민호, 박의연, 손홍국)이 강사로 참여했다.

○ 참여대학원생 <청소년 철학교실> 운영 현황

- 위민호(박사과정), 2013년 가을, 주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현대를살아가는청소년을위한몇 가지 물음과 단상」
- 박의연(박사수료), 2013년 겨울, 주제: 「이유도 모르고 착하기는 싫어요」
- 손홍국(박사수료), 2014년 겨울, 주제: 「철학적 사유의 길: 플라톤과 데카르트 읽기」

(5)<대학원생 독회> 지원

○ 22개 팀(서양철학 15팀, 동양철학 7팀)의 <대학원생 독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자율적인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 서양철학 독회(15팀): 인지과학 독회, 영미철학 독회, 듀이 『인간본성과 행위』 『경험과 자연』 『경험으로서의 예술』 원서 독회, 실용주의 미학, 현대윤리학, 칸트 독회, 하이데거 독회, 프랑스철학 독회, 서양근대철학사, 칼 맑

스 『헤겔 법철학 비판』 강독, 현대미학·정치철학세미나, 라틴어 강독, 희랍어 강독

○ 동양철학 독회(7팀): 선진유가연구, 순자집해독회, 심삼경주소독회, 불교현상학 강독, 십지경강독, 법과 연기 강독, 빨리어 독회

(6) <대학원생 학술토론회> 지원

○ 최근 2년간 총 6회의 <대학원생 학술토론회>를 지원했다.

○ 사업단은 서로 다른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횡단적 사고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문 횡단적 사고에 기반을 둔 대학원생들의 자율적인 학술·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장려했다.

②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1) 사업단의 학사관리제도

(1) 사업단의 학사관리제도 운영 현황

○사업단은 학칙, 교학규정, 내규, 세칙에 근거한 현행 학사관리 체계를 토대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 체계를 갖추어 운영했다.

○[전남대학교대학원교학규정] 제3장 학사운영에 근거하여 입학전형, 교과과정, 개강과목, 수강신청 및 성적, 각종 자격시험과 학점, 수료에 관한 학사 전반의 관리 원칙을 수립하여 학사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했고,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내규]를 별도로 두어도 교수배정 및 세부전공, 학과교수의 담당 교과목 수, 수강학점과 이수학점,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을 학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사관리의 수월성을 제고했다.

○BK21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여 대학원생 관련 세칙을 별도로 두고, 선발과정, 학생 평가 기준, 교과과정, 이수학점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업단 특성을 반영한 학사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철학과 대학원 내규 제18조[논문 작성 계획서 및 발표에 관한 사항]에 따른 별도의 규정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학위논문 작성 계획서 및 예비발표 지침]을 마련하여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 계획서 및 예비발표에 관한 일반사항들을 <철학과 대학원 세미나>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사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2) 입학전형 운영 현황

○사업단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전형 및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내규]에 따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연 2회 시행하고 있는 현행 입학전형을 사업단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배출하기 위해 유연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여 운영했다.

○학생 선발의 평가요소를 학위과정 성적, 외국어, 필답고사 등으로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외에 수시입학의 기회를 확대했고, 횡단형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 철학교육 관련 종사자나 경험자, 사회복지계열 전공자 등에 게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배출을 위해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3) 지도교수제 및 세부전공 선택 운영 현황

○각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2장 제7조에 덧붙여 사업단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경우 공동지도교수제 선택을 적극 권고했다.

○공동지도교수는 학생지도 및 논문지도의 역할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단의 교육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과정 학생의 세부전공은 지도교수 선정 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전공 선택의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

을두지않은 현행 규정에 덧붙여 사업단은 횡단형 교과과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철학과 타학문의 교차수강 및 이수를 최소 3학점 이상 의무화함으로써 학문 지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했다.

(4) 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운영 현황

□외국어시험운영현황

- 현행 외국어시험은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 후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외국어시험면제지침] 제2조에 따라 외국어시험 신청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대학원 입학 후 각종 시험 점수를 취득하였거나 각 단계 이상 인증을 받은 학생은 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업단에서는현행[대학원외국어시험면제지침]을국제화수준을제고하는방향에서강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여대학원생의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어시험방식을현행필답고사에구술시험을추가했다.또한동서양고전번역능력을강화하기위해서원전번역시험을외국어시험의유형으로도입했다.

□종합시험운영현황

- [전남대학교철학과대학원내규]제16조에따라석사과정은18학점이상, 박사과정은27학점이상을취득하고지도교수의추천을 받은학생에게종합시험 응시자격을부여하고 있으며, 횡단형 교과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교차하는 교과목을 종합시험에 부과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대학원교학규정]제4장제30조1항<대학원종합시험면제지침>과[철학과대학원내규]제17조에따라취득학점의평균평점4.2(4.5만점기준)이상인학생또는학위과정중한국연구재단등재및등재후보학술지에제1저자로논문을게재한학생은시험을면제한다는 종합시험 면제 규정을 학생들의 학술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실적을 가진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5)커미티구성및 운영 현황

- BK212단계사업의수행경험을바탕으로산학협력단, 철학과대학원, 철학연구교육센터간의유기적협력체제를구축하여사업수행의수월성을제고하고 있다.
- 사업단장, 대학원주임교수, 학과장, 철학연구교육센터장이참여하는사업단운영위원회를조직하여운영하고있다.
- 사업단운영위원회아래기획지원부, 학술지원부, 국제협력부, 취업지원부를두어사업추진의체계성과효율성을높이고 있다.

2)체계적학사운영을위한각종제도구축현황

(1)학사운영내규의제도화

□철학과대학원내규

- [전남대학교대학원교학규정]에따라대학원 학사 운영 전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과의특성과학사운영의수월성을제고하기위해[전남대학교철학과대학원내규]를별도로두어수강학점, 이수학점, 지도교수, 자격시험, 논문심사및지도에관한전반적사항을정하고 있다.
- [철학과대학원학위논문작성계획서및예비발표지침]을마련하여학위논문작성계획시기, 예비발표, 학위논문에관한일반적사항을규정하여학위논문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 있다.

□학생안내매뉴얼

- 매년두차례(하계/동계)개최되는<철학과대학원세미나>에서대학원의학사관리및주요안내사항을학생들에게책자로배부하

고있다.

○학과홈페이지를통해입학전형및학사일정에관한사항을안내하고있으며, 향후필요한사업단의추가안내사항등은학과홈페이지나사업단홈페이지에지속적인업데이트를통해보완할예정이다.

□학위취득소요기간장기화방지를위한제도구축현황

○[철학과대학원학위논문작성계획서및예비발표지침]에따라학위논문제출예정자중석사는6개월, 박사는1년이전에논문작성계획서의제출을의무화하여논문작성의수월성을기하고있다. 사업단은이에덧붙여논문지도위원회를통해서상시적으로논문작성과정을점검하도록하고 있다.

○<철학과대학원세미나>에서학위논문의예비발표를의무화함으로써논문작성의지연및장기화를방지하고논문의질적수준을높이고 있으며, 학위취득기간의장기화방지를위해논문작성의단계적과정및절차를거치지않을경우학위논문을제출할수없도록 제도를강화했다. 또한석사수료후2년이내, 박사수료후4년이내학위논문제출을의무화하도록[철학과대학원내규]를정비할 예정이다.

○박사학위예정자에게논문제출자격으로한국연구재단등재및등재후보지에1편이상의학술논문을게재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한우수한석박사논문을선정하고, 저서출판을지원함으로써학생들의학위논문작성과연구활동을장려하고있으며, 우수한박사학위논문제출자는사업단의신진연구인력채용에서우선권을부여하고 있다.

3)학문후속세대의지속적양성을위한연계과정제도및교과과정

(1)연계과정운영현황

□학석사연계과정

○[전남대학교학석사연계과정운영지침]에근거하여학석사연계과정을운영하고있다.

○모집인원은일반대학원석사과정입학정원의30%이내로하고 있다.

○응시자격은90학점이상을취득하고, 평균평점3.5(4.5기준)이상인자로제한하고있다.

○선발방법은서류전형에의거하되, 학부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와학과에서별도로정한기준에의해종합적으로심사· 평가하고 있다.

□석박사통합과정

○[전남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석박사통합과정이 운영되고있다.

○ 최근 2년간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2학기, 하정호

- 2014년 1학기, 김지용, 김귀옥

○사업단은 학석사 연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학문후속세대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양성 및배출을위해학석사연계과정과석박사 통합과정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실적

①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최근 2년)

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현황

<표 2>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2013년	7.5	9	0.5	17
	2014년	16	23.5	1.5	41
	2015년	7.5	11.5	0.5	19.5
	계	31	44	2.5	77.5
배출	2014년	3	2	X	5
	2015년	4	2	X	6
	계	7	4	X	11

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

1)우수대학원생확보및 배출 실적

☐입학자원의분석에따른확보 실적

○2013-2015년 동안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은 29명이다.

○ 철학과 학부 출신자:최근 2년 동안 석사과정 4명, 박사과정 3명이 입학했다.

○타대학철학과 및 관련학과 출신자:최근 2년 동안 석사과정 11명, 박사과정 8명이 입학했다.

○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은 3명이다.

○ 전체 29명의 신입생 가운데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 7명이 사업단에 참여했다.

☐우수한외국인유학생유치 실적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인 미국의 Mcgibbon Joseph Bard, 스리랑카의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가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동북, 동남아시아지역의우수학생 유치

- 중국북단대학교철학과 왕당지에(汪堂家)교수, 연변대학교 철학과 팡하오관(方浩範) 교수, 그리고 일본동경대학교철

학과 사카키바라 테츠야(原哲也) 교수의 신입생 추천을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사회과학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 연변대학교 광하오관 교수의 추천을 받아 2015년 2학기 가오밍웬(高明文)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사업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졸업자원의분석에따른배출 실적

○ 당초 사업단은 소속학과 대학원생 배출 계획을 매년 석사 6명, 박사 4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2년간 석사 13명, 박사 7명이 졸업함으로써 사업단의 당초 배출 목표치를 거의 달성했다.

○ 전일제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후 석사과정은 1년 이내 박사과정은 3-6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졸업하고 있다. 본사업단소속대학원의배출실적은타지방대학대학원과비교하면상당히 높은편이다.

2)우수대학원생지원실적

□다양한장학금프로그램운영

○BK21플러스참여 대학원생 장학금:참여대학원생 20명 이내에서 석사월60만원,박사월100만원 지급

○TA/RA장학금:대학원생 6명 이내에서 월25만원 지급

○석사과정진학예정자: 월20만원RA장학금지급

○ 매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 대학원생 10명 이내에서 매학기 수업료 또는 기성회비 면제

○ 글로벌 플러스 장학금: 대학원생 1인에게 매학기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 면제

□외국인유학생지원

○외국인길잡이/도우미프로그램을운영: 외국인 유학생인 McGibbon Joseph Bard,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에게내국인학생을 1:1로연결하여유학생들의학업증진 및대학생활적응력을높였으며,내국인학생들의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있다.

○ McGibbon Joseph Bard의 경우 글로벌 플러스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면제받도록 지원하였다.

○출입국및보험, 생활관안내를통해보다편리하고쉽게유학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 있다.

3.2 대학원생의 취업률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① 취업률

<표 3>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업현황						취업률 (%) (D/C) × 100
		졸업자(G)	비취업자(B)			취업대상자 (C=G-B)	취업자(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4년 8 월 졸업자	석사	3	1	0	0		0	석사/박사 합산
	박사	2	X	X	0		2	
2015년 2 월 졸업자	석사	4	2	0	0		1	석사/박사 합산
	박사	2	X	X	0		2	
계								

② 취업의 질적 우수성

□최근 취업 실적 분석 및 평가

- 석·박사 졸업자 중 절반 이상이 전공영역의심층연구를위해박사과정에진학하거나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함으로써 상급과정으로의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공관련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취업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고 있다.
- 석사학위취득자가운데 전일제 학생은 대다수가전공영역의심층연구를위해박사과정에진학함으로써상급과정으로의원활한연계가이루어지고있다.
- 박사과정 재학 중 또는 수료 후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이론-실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대학강사로취업

- 2014년8월과 2015년 2월 박사학위취득자4명 가운데 3명은모두 BK21 2단계 지원을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박사학위 취득자 3명 모두 전남대학교철학과강사 등으로취업하여교양및전공강의를하고있으며,나머지 1명은 전문직 직업종사자이다.
 - 류도향(2014년8월 졸업): 철학과 전업강사
 - 이회진(2015년 2월 졸업): 철학과 전업강사
 - 전경진(2015년 2월 졸업): BK21 플러스 횡단형 철학전문인력 양성사업단 박사후 과정

□국내박사과정진학

○ 2014년8월과 2015년 2월 석사학위취득자총7명중2명은국내대학원에진학했으며, 3명은 전문직 직업종사자이다.

- 김정부(2014년8월 졸업): 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 정현주(2015년2월 졸업): 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재학 중 취업 실적

○2015년 2월 설립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산학협력기관으로 광주광역시가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이론-실천 횡단형 전문인력 2명이 본 사업단에 참여하던 중 위탁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 추교준(철학과 박사수료):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연구원(2015년 2월 4일 임용)
- 손홍국(철학과 박사수료):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연구원(2015년 2월 4일 임용)

○ 2009년 2월에 설립된 <지혜학교>(철학을교육이념으로하는대안중고등학교)를 통한위탁교육및인턴제를시행하고있으며, 현재 지혜학교에 이론-실천 횡단형 전문인력 1명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정상엽 (철학과 박사과정): 지혜학교 한문강사

③ 취업지도/진로 개발 실적 및 계획

1) 취업지도 및 진로개발실적

(1) 취업지도

□취업지도 실적

○교과과정의전면적인개편과더불어철학교육관련실습교과목7개(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I,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II,소외계층을위한철학교육III,청소년철학교육I,청소년철학교육II,시민철학아카데미I,시민철학아카데미II)를개설하여운영함으로써이론과실천을겸비한철학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취업활성화를위한3개의인력양성트랙

- 3개의 인력양성 트랙은이론-실천횡단형트랙에 해당하며,미래기반인문복지패러다임을지향하는과정으로서소외계층철학교육,시민철학아카데미,청소년철학교육으로나뉜다.

-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이 2개이상의트랙을 이수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지역수요 연계 철학교실 운영 실적

○2006년부터지금까지 다양한계층의수요자를위한철학교육을사업단의핵심적인연구·교육사업으로선정하여추진해왔다.

○이론-실천횡단형철학전문인력으로배출된대학원재학생과수료생들이중심이되어2006년부터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구성된진남대<청소년철학교실>과<철학교실캠프>를직접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인문복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철학교실 운영 실적

최근 2년간 <청소년 철학교실>은 총 109회 237시간, <철학교실캠프> 외부강의는 9개 학교에서 총 84회 168시간을 진행했고, 그 중 3인의 참여대학원생이 <청소년 철학교실>의 강사로 참여했다.

- 2013 가을 청소년 철학교실(8회 16시간)

강사: 위민호(철학과 박사과정)

주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을 위한 몇 가지 물음과 단상

- 2013 겨울방학 청소년 철학교실(8회 16시간)

강사: 박의연(철학과 박사수료)

주제: 이유도 모르고 착하기는 싫어요

- 2014 겨울방학 청소년 철학교실(5회 15시간)

강사: 손홍국(철학과 박사수료)

주제: 철학적 사유의 길-플라톤과 데카르트 읽기

○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학교실 운영사업은 참여대학원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결과, 대학원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철학을 매개로 직접 만나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이론-실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으로서 소통의 철학을 스스로 체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사업단 내부의 자체평가이다.

□ 취업 지도에 따른 성과

○ 본 사업단은 BK21 2단계 사업을 토대로 지난 2년간 철학이론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철학교실 운영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구축 (총 18개 기관)

-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 네트워크 (경신중학교, 금호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영광해룡고등학교, 순천팔마고등학교, 영암삼호고등학교, 무안고등학교, 광주대동고등학교, 광주상무고등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 전대사대부속고등학교)

- 민간단체와 연계한 철학교실 네트워크 (광주민중의 집, 성빈여사)

○ 사업단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는 봄, 가을 청소년철학교실과 여름, 겨울 철학캠프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철학교실에서 철학강좌를 들었던 학생들이 대학 철학과에 진학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철학강좌를 의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철학교실 수요는 이론-실천 철학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진로개발

□진로개발실적

○ 사업단에 소속중인 대학원생들이 이론-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지혜학교>에 비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에 재학 중 위탁계약직으로 참여하고있다.

□교내 철학전문인력 진로 확보 노력

○ 2001년에 설립된<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는 2005년 여름부터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빛고을 철학교실”로 시작해서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 2008년-2012년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인문강좌”, 참여 교수 박구용(연구책임자)의 2013년 “빛피 인문학, 마이너리티와 함께 인문공감의 길을 내다”, 참여 교수 박구용(연구책임자)의 201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지원사업 “인문도시 광산, 빛피 인문학과 함께 세계시민을 향한 물꼬를 트다”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인문학 강연을 통해 본 사업단에서 배출한 이론-실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 2009년 설립된 <전남대학교 호남불교문화연구소>의 참여 교수 이종표(연구책임자)는 2013년 봄부터 <불교문화사업단>의 2013년 “사찰음식 현황조사”와 “사찰음식 원형문화”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2014년 “사찰음식 현황조사”에도 참여하여 철학전문인력의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인문복지를 위한 시민인문학 강좌 운영을 이론-실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 교외 철학전문인력 진로 확보 노력

○ <아세교육협동조합>은 사업단의 참여교수(이종표, 조운호)와 대학원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2014년 설립했다. <아세교육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 동구를 근거지로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미래 인문복지를 실현할 대안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민을 위해 시민인문학 강좌, 마인드 힐링, 자연음식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협조하여 2015년 설립된 <시민자유대학>은 2년제 8학기 과정으로 철학, 사회학, 과학, 건축학, 미술, 음악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교수(박구용, 조운호), 신진연구인력(류근성)의 참여를 통해 광주시민의 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교육이 가능한 철학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2) 취업지도및진로개발계획

□취업지도 및진로개발계획

○장단기적차원에서대학원생의취업지원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취업지원부를설치하여취업지도와진로개발업무를수행한다.

○진로와취업관련오리엔테이션및워크숍을정례화하고,국내외각종교육·연수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의역량을강화한다.

○협력기관을통해위탁교육및인턴제를활성화하고,논리논술전문가,철학상담사,인권평가사의공인인증제추진등철학전문인력의공공부문채용의기회를 확대한다.

○교육 및 전문연구자, 진학, 취업, 인문학 대중화 참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로 지도를 한다.

□ 취업 예상 진로

○교육 및 전문연구자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철학교육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를 대학중점연구소와 같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승격시켜 박사후과정생및진입연구원을채용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 기반을 토대로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제공하고,더불어 다양한수요자들을위한철학교육을시행한다.

- <전남대학교 호남불교문화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나 유관기관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활동과 철학교육을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진학

국내외 대학원 상급과정에 진학한다.

○ 협력 기관 취업

<지혜학교>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등 협력기관에 취업하여 활동한다.

○인문학 대중화 참여

이론-실천횡단형트랙을활성화하고다양한실습프로그램을 <아세교육협동조합>, <시민자유대학>에서 운영하여학생들의취업능력을제고한다.

□취업지도 및 진로개발계획의기대효과

○최근철학·인문학에대한관심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종합적이고횡단적인사고능력을갖춘철학교육전문인력의 필요성이증가할 것이다.

○사업단이추진하는분야는철학의학문적특성을최대한살리면서도학문의사회적기여도를극대화할수있는영역이다.사업참여학생들은전공학습을심화하는동시에,사회적요구에부응하는현실적응능력을갖게됨으로써취업현장에서높은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횡단적·종합적사고능력을갖춘철학전문인력은특성화된연구분야와주제를확장하고개척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아울러철학의직업적전망을혁신적으로확장하여제도권안팎에서다양한활동영역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횡단형철학전문인력은연구와교육을실천적으로연결시킴으로써학문과사회의소통에중요한토대를제공할것이며,이과정에서자생적인한국철학의모형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4 대학원생 연구역량

4.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최근 2년)

① 대학원생 1인당 환산 논문 편수

<표 4> 대학원생 논문 및 저서 환산 편수 실적

항목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	12	9	21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학술 저서 환산 편수	국어	-	-	-	-
	외국어	-	-	-	-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	12	9	21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X	X	X	0.7924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수		X	X	X	26.5

②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5>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편수

구분	최근 2년간의 학술대회 발표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 수	0	0	0	1	9	10	0	1	1	1	10	11
총 환산편수	-	-	-	2	9	11	-	1	1	2	10	12
1인당 환산편수	X		X	X		X	X		X	X	X	0.4528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수										X	X	26.5명

4.2 참여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의 우수성

①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표 6>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항목		연도별 목표					연평균 증가율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연구재단등재(후보)지 1인당 논문 환산편수		0.93	0.93	1.1	1.1	1.1	6.09%
국제저명학술지 1인당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1인당 논문 환산편수		0.15	0.15	0.23	0.23	0.23	17.77%
학술저서 1인당 환산편수	국어	0.23	0.23	0.3	0.3	0.3	10.14%
	외국어	0	0	0	0	0	0%
학술대회 발표 논문 1인당 환산편수		0.38	0.38	0.46	0.46	0.46	7.01%

※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최근 2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대학원생 연구실적(환산편수)에 관한 실현 가능성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등 부가설명 기술

1) 최근 2년간의 실적 분석 및 평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1인당 논문 환산편수

○논문 실적의 달성률은 100%이며, 참여대학원생 1인당 0.8편(전체 연평균 10.5편)으로 1-2차년도 목표치(전체 연평균 10.5편)를 달성했다.

○사업 초기 박사과정생의 상당수가 신입생(8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2년간 등재지 논문 실적(총 21편)

김성부. 「12연기설의 식과 명색의 상호관계」,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2014.12).

_____. 「연기설의 촉(觸)과 두이의 경험」,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2015.05).

김용은. 「퍼트남과 사실/가치 이분법」, 『범한철학』, 범한철학회(2015.03).

김태준. 「공공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지평 재구성: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한국공공사회학회(2015.08).

박의연. 「세계적 분배 정의의 문제: 분배정의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의 가능성」, 『범한철학』, 범한철학회(2014.06).

손홍국. 「데카르트의 『음악개론』에서 협화음의 예술철학적 문제」, 『용봉인문논총』, 전남대 인문학연구소(2014.10).

_____. 「크루지우스의 볼프 충분근거율 비판」, 『철학연구』, 철학연구회(2014.12).

_____.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에서 신의 관념」, 『철학탐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2015.02).
 이무영.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자아와 신문제」, 『칸트연구』, 한국칸트학회(2014.11).
 _____. 「음악학자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음악개론』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융복합인문논총』, 전남대 인문학연구소(2015.05).
 정상엽. 「정약용의 사려중심의 리발이해」, 『범한철학』, 범한철학회(2014.12).
 정소라. 「아렌트의 정치판단 이론의 실용주의적 해석」, 『범한철학』, 범한철학회(2015.03).
 _____. 「다원주의와 의사소통: 하버마스에서 듀이로」, 『철학연구』, 대한철학회(2015.08).
 정화영. 「카시러의 상징 형식에 대한 체험주의적 해명」, 『범한철학』, 범한철학회(2014.06.).
 조배균. 「십중유식설로 보는 법장의 포월논리」,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회(2014.03.).
 _____. 「『화엄오교장』 심식차별 논의에 대하여」,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2014.09).
 임명규. 「참된 희극과 캐리커처 비교를 통해 본 아름다운 추」,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2015.08).
 우동필. 「『MN 9경』과 『중아함 29경』에 나타난 무명과 누의 해석 문제」, 『禪文化研究』, 한국불교선리연구원(2014.07).
 _____. 「12연기 전개설 비판」,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2014.12).
 추교준. 「아우구스티누스와 데카르트의 리듬이론 비교」, 『음악논단』,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2014.10).
 _____. 「데카르트 철학에서 미적 판단의 문제」, 『칸트연구』, 한국칸트학회(2015.06).

□학술대회 발표 논문 1인당 환산편수

○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달성률은 257%이며, 참여대학원생 1인당 0.69편(전체 연평균 9편)으로 1-2차년도목표치(전체 연평균 3.5편)를 초과 달성했다.

○ 학술대회 발표실적(총 17편)

김성부. 「연기설의 촉과 듀이의 경험」,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2015.02.20).
 김용은. 「배제 논변과 체험주의적 은유 이론」, 범한철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2014.06.20).
 _____. 「퍼트남과 사실/가치 이분법」,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2015.02.20).
 김대준.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자율성」, 범한철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2014.06.20).
 백송이. 「노동과 ‘복종하는 주체」, 범한철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2014.06.20).
 이무영. 「Ego cogito와 Res cogitans」,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2015.02.20).
 임명규. 「시민사회와 청소년 자살문제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2014.06.20).
 우동필.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넘어」, 범한철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2014.06.20).
 _____. 「『MN 9경』과 『중아함 29경』에 나타난 무명과 누의 해석 문제」, 선리연구원 학술회의(2014.09.29).
 _____. 「십이연기 전개설 비판」, 한국불교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2014.11.07).
 _____. 「십이연기에서 자아의 구성」,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2015.02.20.).
 _____. 「역관의 십이연기」, 불교학연구회 2015 춘계학술대회(2015.05.16).
 정상엽. 「정약용의 사려중심의 리발해석」, 율곡학회 국제학술대회(2014.10.30).
 정소라. 「‘이성 없는 철학’과 다원성의 제약」, 범한철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2014.06.20).
 _____. 「아렌트 판단이론의 실용주의적 해석」,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2015.02.20).
 조배균. 「법장의 화엄사상에서 다원성의 통합 방식」,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2015.02.20).
 추교준. 「데카르트 철학에서 미적 판단의 문제」, 범한철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2014.06.20).

2) 목표설정지실현가능성및부가설명

□연구재단등재(후보)지논문

○ 단계별로 향후 4-5년차(2016.03-2018.02) 1인당 0.93편(전체 12편), 6-8년차(2018.03-2020.08) 1인당 1.1편(전체

14편)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 최근 2년간 논문 환산 실적은 1인당 0.8편(전체 10.5편)이었다.

○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생 상당수가 신입생(8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의 목표치를 달성했다. 향후 목표도 연구 심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학술지 논문

○ 단계별로 향후 4-5년차(2016.03-2018.02) 1인당 0.15편(전체 2편), 6-8년차(2018.03-2020.08) 1인당 0.23편(전체 3.0편)에 이르도록 기본 목표치를 설정했다.

○ 2015년 2월 동경대에서 개최한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학술대회 수준의 학회에 6명의 발표자가 참여함으로써 국제학술지 투고를 위한 초석을 다진 상태이다.

○ 2016년 2월 제2회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준비 중이며, 일본측에서는 東京大 人文社 系 究科哲 究室・インド哲 佛 25945 3398 30740 究室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발표원고를 외국어로 준비하여 발표논문의 기획에서부터 기타 국제 저널에 투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최근 2년간 국제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석사과정생 1명, 박사과정생 3명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간 대부분 영어권에서 해외 연수(박의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백송이: 독일 훔볼트대학교, 전하나: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정화영: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를 수행했다. 1년 동안 해외 대학원에 체류하면서 습득한 국제적 연구 역량을 토대로 이들에게도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도록 장려한다.

○ 이상의 조건 이외에 동양철학전공양순자 교수와 서양철학분야의 Kim Su Rasmussen 교수의 지도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학술지 투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학술저서

○ 단계별로 향후 4-5년차(2016.03-2018.02) 1인당 0.23편(전체 3.0편)에서 6-8년차(2018.03-2020.08) 1인당 0.3편(전체 4.0편)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 단행본 저술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으로 공동저술을 권장한다.

□ 학술대회 발표

○ 단계별로 향후 4-5년차(2016.03-2018.02) 1인당 0.38편(전체 연평균 5편)에서 6-8년차(2018.03-2020.08) 1인당 0.46편(전체 6.0편)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 최근 2년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1인당 0.69편(전체 연평균 9편)으로 1-2차년도에 도달하려고 했던 목표치(전체 연평균 3.5편)를 초과 달성했다.

○ 2016년 2월 제2회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에 참여 대학원생 6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매년 국내 학회의 대학원생 발표 섹션에 참가할 예정이다.

□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향후 사업 기간 동안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요구되는 1인당 연구재단등재(후보)지, 국제학술지, 학술저서, 학술대회 발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 간의 논문 작성 경험을 공유하고,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들의 멘토링을 거쳐 학술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학술대회 발표 성과는 257%를 달성하였으며, 대부분 이를 수정 보완하여 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투고했다. 발표 대비 게재율은 약 41%로 나타났으며, 향후 발표율 상승과 발표논문의 수준을 향상시켜 게재율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제학술지 논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와 해외연수를 장려한다. 이 과정에

서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도록 집필과 교정에 추가되는 장애 요건을 제거해준다.

○논문게재료, 저역서출판비, 학술대회발표경비, 박사학위논문출판경비 등을지원하고, 학술활동실적을평가하여인센티브를제공한다.

②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계획의 우수성

□대학원생학술활동평가및지원시스템구축

○대학원생학술활동에대한체계적인평가시스템을구축한다.

○개인별학술활동실적을평가하여사업단계속참여여부에반영하며, 장단기해외연수자선정, 취업알선및추천, 신진연구인력채용시우선권을부여한다.

○논문게재료, 저역서출판비, 학술대회발표경비, 박사학위논문출판경비 등을지원한다.

○학술활동실적을평가하여인센티브를제공한다.

○<대학원생논문멘토링프로그램>을통해서지도교수와별도로박사학위소지자이상을멘토로지정하여대학원생논문작성에수월성을높인다.

○대학원생 학술발표회와 대학원 세미나를 활용한다.

○연간1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장단기연수 기회를제공한다.

○전남대학교국제교환학생제도, 초청교수제도등을활용하여연간2~3명을파견및초청함으로써학문역량의국제화를증진한다.

○해외저명학자및국내전문가초청강연등을통해최근의국내외학계동향을파악하고국제적감각을갖출기회를제공한다.

○국내외의학술적네트워크를확대·강화하고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등학술집담회의정례적인영을통해연구와교육의수월성을증진한다.

□연구수행에필요한공간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27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중에 참여 대학원생에게 20석을 제공하고 있다.

- 인문대 1호관 1층 인문대 대학원 정독서실: 철학과 대학원생 4명 수용(약 7평, 책상 4, 의자 4, 책장 2, 인터넷 전용선)

- 인문대 1호관 209호 BK21 플러스 대학원생실: 대학원생 15명 수용(약 18평, 책상 15, 의자 15, 책장 2, 컴퓨터 2, 인터넷 전용선)

- 인문대 1호관 3층 호남불교문화연구소: 대학원생 5명 수용(약 7평, 책상 5, 의자 8, 탁자 1, 책장 5, 컴퓨터 2, 인터넷 전용선)

- 인문대 2호관 1층 BK21 플러스 도서관: 대학원생 3명 수용(약 5평, 책상 3, 의자 5, 탁자 1, 책장 6, 컴퓨터 1, 인터넷 전용선)

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①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계획)

☐BK21단계사업참여신진연구인력진출현황

○신진연구인력2명교수임용:박준상계약교수는승실대학교철학과교수로, 정용환박사후연구원은순천대학교철학과교수로임용되었다.

○외국인참여대학원생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장수(張壽)는중국연변대학교수로임용되었다.

○이러한사례는BK21사업을통해대학원생,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전임교수로이어지는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선순환적인성공을보여주는것이다.

☐우수신진연구인력확보계획

○박사후과정생2명, 계약교수2명채용

-1단계(2013~2014):박사후과정생2명, 계약교수2명

-2단계(2015~2016):박사후과정생2명, 계약교수2명

-3단계(2017~2019):박사후과정생2명, 계약교수2명

☐채용의공정성확보

○[전남대학교교원의인사에관한규정]이정한합리성과공정성을준수하며공개채용을원칙으로한다. 국내외대학이나연구소또는관련전문분야에종사하는자로서업적이탁월하고사업단의목적에크게공헌할수있는우수연구인력의경우는특별채용의방법으로임용할수있다.

○타대학출신박사학위소지자를50%이상채용한다.

○공개채용은제1차자격심사, 제2차전공심사, 제3차면접심사로구분하여실시하며, 각단계별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한다. 각단계별심사기준과방법등공개채용에관한세부사항은심사위원회의별도지침으로 정한다.

○우수신진연구인력의확보를위해대학및사업단홈페이지, 그리고외국의전문인력채용사이트를 활용한다.

☐우수신진연구인력지원계획

○BK21플러스사업의협약사항에따라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리서치펠로우는월250만원과퇴직금을지급한다.

○연구활동에필요한공간및편의시설을제공하고, 논문게재료,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경비등을지원한다.

○성과급은연구실적성과급, 교육및기타실적성과급, 사업운영성과급으로구분하여지급한다. 연구실적 성과급은자체평가기준에따라1편당100만원을기준으로지급한다. 교육및기타실적성과급은다음기준을따른다.

☐연구실적성과급계산기준

- 교육및기타실적편수의총합이1.9편이하는100만원지급
- 교육및기타실적편수의총합이2~2.9편은200만원지급
- 교육및기타실적편수의총합이3~3.9편이상은300만원지급
- 교육및기타실적편수의총합이4~4.9편이상은400만원지급
- 교육및기타실적편수의총합이5편이상은500만원지급

-국제(저명)학술지게재는100만원을추가지급

□신진연구인력활용계획

- 학문횡단연구팀, 이론-실천횡단연구팀이워크숍을격월진행하며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이공동참여한다.
- <대학원생논문멘토링프로그램>에참여하여전문적지식과경험을전수한다.
- 철학전문언어특별교육프로그램(학과지원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2006년부터시행)을주도적으로운영한다.
 - 철학독일어특별교육과정:헤겔정신현상학강독, 해석학독회
 - 철학한문특별교육과정:십삼경주소, 호남문집, 대승기신론독회
 - 철학중국어특별교육과정:중국철학사상사강독
 - 철학영어특별교육과정:영미철학독회, 듀이독회, 논어(영어번역본)독회
 - 철학일본어특별교육과정:맹자(일본어번역본), 섭대승론(일본어번역본)강독

①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실적)

□신진연구인력채용 실적

○계약교수3명 채용

김 현, 계약교수 2013.09.01.-2015.08.31

류근성, 계약교수 2013.09.01.-2015.08.31

이향준, 계약교수 2013.09.01.-2015.08.31

○ 급여(퇴직 적립금 포함)

- 계약 교수 월 250만원

○ 연구실적성과급 지급

○ 퇴직금 지급

○ 연구공간 제공: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 3호관 301, 302, 307, 308, 315호(컴퓨터 5대, 인터넷 전용선, 책상 5, 의자 12, 책장 15, 탁자 4)

○ 신진연구인력 채용 달성률은 75%이다. 신청서 상의 달성률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반적인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 기계약한 신진연구인력 전체는 따로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의 구별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교수로 채용했다.

○ 신진연구인력 활용계획에 따라 학문횡단연구팀, 이론-실천횡단연구팀에 소속되어 대학원 워크숍을개최하고, <대학원생논문멘토링프로그램>과 철학전문언어특별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참여했다.

□신진연구인력연구실적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은 연구교수 1인당 3.13편으로 계획 대비 125%를 달성한 것으로 매우 뛰어난 편이다.

○ 김현 학술연구교수

김현. 「교화과정의 논리적 구조」, 『철학논총』,西江大學校 文科大學 哲學科(2013.10).

_____. 「삶으로서의 인문학, 권리로서 인문학」, 『한국여성철학』, 한국여성철학회(2014.05).

_____. 「폭력 그리고 진리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14.08).

_____. 「환상의 횡단으로부터 레닌의 반복으로」, 『범한철학』, 범한철학회(2014.09).

_____. 「맑스 자연개념의 생태주의적 함의-셸링(F.J.W.Schelling)의 유기체적 자연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범한철학』, 범한철학회(2015.06).

_____. 「코윈 혹은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2015.08).

_____(공저). 『철학의 이해』, 철학과현실(2014.02).

○ 류근성 학술연구교수

류근성. 「맹자 인간학의 실용주의적 독해」, 『동양철학연구』, 東洋哲學研究會(2014.02).

_____. 「공자와 듀이의 인간관」, 『공자학』, 韓國孔子學會(2014.12).

_____. 「선진 유가 인간론의 자연주의적 성격」, 『공자학』, 韓國孔子學會(2015.05).

_____. 「관계 중심적 유가 윤리와 개인」, 『철학논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2015.08).

_____(공저). 『철학의 이해』, 철학과현실(2014.02).

_____(공저). 『호남유학의 재구성』, 전남대학교출판부(2015.01).

○ 이향준 학술연구교수

이향준. 「호남학: 어느 철학자의 비전과 그 후50년」,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2013.12).

_____. 「서, 반서, 그리고 거울 뉴런」, 『동양철학연구』, 東洋哲學研究會(2013.12).

_____. 「공중누각의 기상론: 소옹의 모호한 기상」, 『울곡사상연구』, 울곡연구원(2014.06).

_____. 「역학적 사유의 살아있는 기원」, 『동양철학연구』, 東洋哲學研究會(2014.07).

_____. 「리, 사물, 사건」, 『울곡사상연구』, 울곡연구원(2014.12).

_____. 「미발심체: 마지막 어휘, 혹은 정신적 경련?」, 『유학연구』, 忠南大學校 儒學研究所(2014.12).

_____. 「이향로: 역사의 비탈길에 선 성리학자의 기획」, 『공자학』, 韓國孔子學會(2015.05).

_____. 「도 개념의 인지적 주석, 그리고 그 너머」, 『동양철학연구』, 東洋哲學研究會(2015.07).

_____(공저). 『철학의 이해』, 철학과현실(2014.02).

_____(공저). 『호남유학의 재구성』, 전남대학교출판부(2015.01).

□신진연구인력활동실적

○ 대학원 강의실적

- 류근성: 2014년 1학기 <횡단형연구&연구윤리(석사)>
- 김현·류근성: 2015년 1학기<횡단형연구&연구윤리(박사)>
- 김현: 2015년 2학기 <횡단형연구&연구윤리(석사)>

○ 교외 활동실적

- 김현: 2014년 광주여성재단,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광주젠더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
- 김현·류근성: 2013년 시민인문강좌(연구 책임자: 박구용) “빛피 인문학, 마이너리티와 함께 인문공감의 길을 내다: 인문광산(光山)에서 인문광주(光州)로”에 주도적으로 참여.
- 김현·류근성: 2014년도 인문도시 지원 사업(연구 책임자: 박구용) “광산(光山), 빛피인문학과 함께 세계시민을 향한 물꼬를 트다: 인문도시 광산에서 인문자치도시 광산으로”에 주도적으로 참여.
- 이향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희망 어린이 인문학”에 주도적으로 참여.

② 신진연구인력의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환산 편수

<표 7> 신진연구인력 1인당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실적

항목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	-----------	---------

항목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기간 실적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3	8.5	6	17.5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	1.3332	-	1.3332
	외국어	-	-	-	-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3	9.8332	6	18.8332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X	X	X	6.2777
환산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X	X	X	3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 (최근 2년)

가.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학생 비율

<표 8>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

항목	구 분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외국인 전임교수	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1	2	1	4
	외국인 전임교수 수	1	2	1	4
	비율 (%)	100%	100%	100%	100%
외국인 대학원생	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17	41	19.5	77.5
	외국인대학원생 수	0.5	1	0.5	2
	비율 (%)	2.94%	2.44%	2.56%	2.58%

나.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및 교과담당계획 (학과전체기준)

1)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 Kim Su Rasmussen 교수
-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Blume” ” ,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51: 3 (2015.08)
-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 “The Globalization of Cliches and the Search for Pure Language” , 『인문과학연구』 , 41집 (2014.06)

• 「근원적 유한성: 하이데거와 자기의 해석학」 , 『범한철학』 , 76집 (2015, 봄)

• “Achilles and the Tortoise: Gadamer's Concept of Understanding” , 『대동철학』 , 71집 (2015.06)
- 대표실적 및 우수성

- Kim Su Rasmussen 교수의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Blume’ “은 국제저명학술지(A&HCI)에게 재되어객관적우수성이입증된논문으로,PaulCelan의시 ‘Blume’ 을 시의 초고와 최종원고 사이의 텍스트적 관계를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Rasmussen 교수는 이 논문에서 ‘Blume’ 을 전체적으로 자율적인 미학의 관점이 아니라, 텍스트 사이의 결정되지 않은 독특한 표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Rasmussen 교수의 「근원적 유한성: 하이데거와 자기의 해석학」 은 기본적으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한 논문이다. Rasmussen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하이데거에 따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염려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구조에 대한 서술로 ‘염려’ 개념을 분석한다. Rasmussen 교수는 하이데거의 염려 개념을 현대 철학에서 몇 가지 인간존재에 대한 대안적 시각들과 비교함으로써 현대의 인간존재 이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2) 외국인 교수 교과담당 현황 및 계획

○ 외국인 교수 교과담당 실적

- 2013학년도 2학기, 철학영어/예술철학/미학연구(9학점)
- 2014학년도 1학기, 예술철학1/문화예술철학 특강(6학점)
- 2014학년도 2학기, 현대유럽철학연구/이론과 실천/예술철학2/미학입문2(12학점)
- 2015학년도 1학기, 미학입문1/해석학 연구/예술과 철학(9학점)
- 2015학년도 2학기(예정), 미학입문2/사회철학연습/소통과 철학(9학점)

○ 현재 학부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과목의 영어강의 및 영어논문 작성 지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참여교수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의 국제학술지 공동논문 작성 및 국제 학술대회 공동 발표에도 활동할 예정이다.

5.2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1) 대학원생장단기 해외연수실적

○ 최근 2년간 총 4명의 해외연수활동이 이루어졌다. 연수지역에서의 담당교수와의 면담, 수업, 콜로키움 및 세미나, 현지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백송이(박사)

○ 연수기간: 2014.08.26-2015.08.25(1년)

○ 연수기관: 독일 훔볼트대학교

○ 연구주제: “헤겔철학에서 내재적 비판의 가능성과 규범성”

○ 연구 및 학술활동

- 강의 참석

· 과목명: Der kategorische Imperativ

· 담당교수: Thomas Schmidt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 기간: 2015.04.16-2015.07.16(매주 목요일 14:00-16:00, 총 12회)

- 세미나 참여

· 과목명: [Proseminar] Sozialphilosophie der Stadt

· 담당교수: Rahel Jaeggi(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Dr. Carolin Emcke (Journalist)

· 기간: 2014.10.16-2015.02.27(격주 목요일 10:00-12:00, 총 11회)

· 과목명: [Hauptseminar] Was Ist Kritik?

· 담당교수: Rahel Jaeggi(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Georg Bertram(Freie Universität)

· 기간: 2014.10.17-2015.02.13(매주 금요일 12:00-14:00, 총 12회)

· 과목명: [Proseminar] Krisen und soziale Pathologie

· 담당교수: Rahel Jaeggi(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 기간: 2015.04.16-2015.07.16(매주 목요일 10:00-12:00, 총 12회)

· 과목명: [Hauptseminar] Sozialer Wandel und moralischer Fortschritt

· 담당교수: Rahel Jaeggi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 기간: 2015.04.17-2015.07.17(매주 금요일 12:00-14:00, 총 12회)

- 콜로키움 참여

· 과목명: Colloquium Sozialphilosophie 1

· 담당교수: Rahel Jaeggi(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 기간: 2014.10.16-2015.02.13(매주 목요일 18:00-21:00, 총 14회)

· 과목명: Colloquium Sozialphilosophie 2

· 담당교수: Rahel Jaeggi(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 기간: 2015.04.16-2015.07.16(매주 목요일 18:00-20:00, 총 12회)

- 영미권 및 독일 국내연구자들의 초청강연, 자유토론, 학생들의 논문주제발표 등으로 이루어진 Rahel Jaeggi 교수가 진행하는 세미나, 수업, 콜로키움에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연수자의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학술·연구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적인 연구역량 강화와 학문 횡단형 연구활동의 가능성을 제고했다.

□전하나(석사)

○ 연수기간: 2014.09.02-2015.08.31 (1년)

○ 연수기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 연구주제: “공동체와 개인문제: 찰스 테일러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 연구 및 학술활동

- 강의 참석

· 2014년 가을학기에는 담당교수인 워털루대학교 Shannon Dea 교수의 Gender Issues 수업을 청강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연구했고, 수강생들과 함께 공동연구 및 토론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이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2015년 봄학기에는 Shannon Dea 교수의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수업을 청강했다. 사회 속의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연수자의 연구주제에 접목시킬 방안을 검토했다.

- 면담

· 젠더철학, 페미니즘철학 연구자인 Shannon Dea 교수와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연수자의 연구주제인 개인과 공동체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받았다.

- 세미나 참여

·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W3(Waterloo Women's Wednesdays) 세미나에 참여하여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문제를 함께 다루고 토론했다.

· 페미니즘철학학술모임인TheSouthwesternOntario Feminism and Philosophy Workshop에 참여하여 캐나다 페미니즘 철학의 현황을 파악했고, 연수자의 연구주제와의 연관성을 탐색했다.

- 퀴어인권단체 행사 참여

· 퀴어인권단체인 The Glow Centre for Sexual & Gender Diversity와 여성인권단체인 UW Women's Centre가 퀴어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시행한 부스안내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퀴어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듣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Shannon Dea 교수의 수업 및 면담을 통해 연수자의 연구주제인 사회 속 개인들의 특수성 침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을 진행했고, 퀴어인권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와 실제 퀴어인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의 현실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이론-실천 횡단형 연구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 정화영(박사)

○ 연수기간: 2014.09.05-2015.08.20(1년)

○ 연수기관: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카본데일)

○ 연구주제: “퍼스의 기호작용에 대한 체험주의적 접근”

○ 연구 및 학술활동

- 강의 참석

· 듀이 전공자인 담당교수 Thomas Alexander가 진행하는 20세기 현대철학과 실용주의 관련 과목을 청강했고, 실용주의의 최근 경향과 흐름을 검토하고 연구했다.

- 면담

· 초기 Thomas Alexander 교수와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연수자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제를 적극 검토했고, 담당교수가 추천하는 연수자의 연구주제에 필요한 퍼스의 기호학 서적(The Essential Peirce I/II, Peirce's Theory of

Signs)과 듀이의 주저인 Experience and Nature를 주교재로 삼아 연구했다.

- 세미나 참여

· 매주 개최되는 대학원생들의 학술평의 모임인 Agora에 참여하여 현지 대학원생들의 최근 이론적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고, 연수자의 연구주제와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 연수자의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대학원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헤겔의 정신현상학 영역본 강독스튜디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토론모임에 참여했다. 세미나와 토론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토론함으로써 학문 횡단형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역량을 제고했다.

- Thomas Alexander 교수와의 면담과 강의 참석을 통해 연수자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했고, Thomas Alexander 교수가 추천한 퍼스와 듀이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토론했다.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스튜디오와 토론모임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을 흡수함으로써 학문 횡단형 연구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 박의연(박사)

○ 연수기간: 2014.09.27-2015.07.26(1년)

○ 연수기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 연구주제: “세계적 분배를 위한 새로운 정의의 원칙”

○ 연구 및 학술활동

- 강의 참석

· 담당교수인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Richard J. Arneson 교수는 윤리학과 분배정의, 특히 Luck Egalitarianism에 관하여 오랜시간연구해온 연구자다. 연수자는 담당교수의 세계적 분배정의에 관한 수업을 청강했다. 또한 연수자의 관심주제인 Complicity와 관련하여 대학원 Saba Bazargan 교수의 Ethics 수업을 청강했고, 공동으로 행위를 하면서 개인의 행위의 합 이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와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했다.

- 면담

· Richard J. Arneson 교수와 연수자의 연구주제를 정기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토론했다. Richard J. Arneson 교수와는 매주 미팅을 갖고 특정한 주제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집단적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와 세계적 분배정의의 연관성에 대한 주제를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주목했고, Richard J. Arneson 교수의 추천으로 Kutz의 Complicity라는 책을 중심으로 집단적 행위자로서의 개인문제를 검토했다.

- 세미나 참여

·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Ethics Reading Group에 참여하여 Cohen의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를 함께 읽었다.

- Richard J. Arneson 교수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연수자의 연구주제인 분배정의와 관련한 논문을 매주 한 편씩 읽고 토론했다. 또한 대학원생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분배와 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학문 횡단 및 이론-실천 횡단형 연구역량을 제고했다.

2)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노력 및 현황

□ 외국인 학생 유치 실적

○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 2013년 1학기: RevBarawakumbukeWimalathissaThero(스리랑카), 석사과정입학

- 2015년 1학기: McGibbon Joseph Bard(미국), 석사과정 입학
- 2015년 2학기에 가오밍웨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사업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노력

○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

- 중국 복단대학교와 연변대학교,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교 철학과와의 인적 네트워크 및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현재 베트남 사회과학원 연구원인 Bao VuVu의 입학수속을 진행 중이다.

○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학생을 위해 내국인 학생과 1:1로 연결하는 길잡이/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학생의 학업증진과 생활적응력을 높이고, 더불어 내국인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도 제고하고 있다.
- 글로벌 플러스 장학제도 등 대학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생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출입국 및 보험, 생활관 안내 등 외국인 학생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유학생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사업단은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 학생 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3) 해외석학초청강연회개최실적

사업단에서는 2013년 1회, 2014년 3회, 2015년 2회 등 총 6회(중국 3회, 일본 2회, 독일 1회)의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수준의 횡단형 학술·연구의 활성화에 노력했다. 최근 2년간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 개최 실적

□ 중국 인민대학교 장웬량(張文良) 교수 초청강연(2013.11.27)

○ 주제: 「고대 중국의 진리관」

○ 내용: 고대 중국인과 현대 중국인의 진리관을 비교, 분석했다. 장웬량 교수는 유가와 도가, 불가의 진리관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진리에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했는지에 대해 강의하고, 유불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했다. 장웬량 교수는 유불도의 진리관에 대해 각각의 진리를 절대적인 면보다는 상대적인 면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의: 유가, 불가, 도가의 접점을 통한 새로운 진리관의 방향을 설정하여 학제적인 횡단형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강연이었다.

(2) 2014년 개최 실적

□ 일본 간사이대학교 영문학과 나베시마 고지로(鍋島弘治朗) 교수 초청강연(2014.03.10)

○ 주제: 「조망과 관점에 대한 철학적 탐구: 세 개의 산과 하프 돔」

○ 내용: 이 강연은 조망과 관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주관성에 대한 피아제와 인헬러의 개념(Piaget & Inhelder, 1956)과 레빈슨의 개념(Levinson, 2003), 인지언어학의 개념(Langacker, 1990 Ikegami, 2005)을 논의하고, 인쇄 매체와 인터넷 매체에서 모은 지도와 사진을 제시했다. 하프 돔의 여러 조망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으며 이 제약은 기본적으로 하프 돔에 대한 접근 경로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 의의: 철학분과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지언어학과 관련한 학제적 연구의 발판이 되었다.

□ 중국 연변대학교 팡하오판(方浩范) 교수 초청강연(2014.03.14)

○ 주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동인과 그 정치적 장애」

○ 내용: 팡하오판 교수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를 당연히 하나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이해하면서 오랜 모순과 충돌로 이 ‘문화권’에 심각한 고통과 파괴가 생겼다는 데 주목한다. 이러한 국면은 전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일체화의 추세와 조류에 배치되는 것으로, 팡하오판 교수는 동북아시아 각국에 지역 ‘문화권’의 중건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재건을 주장했다.

○ 의의: 한중일의 문화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횡단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제적인 횡단형 연구의 선진적 사례로 평가된다.

□ 중국 심천대학교 징하이펑(景海峰) 교수 초청강연(2014.03.21)

○ 주제: 「세계 지구촌화 속의 유가윤리에 대한 반성적 사유」

○ 내용: 징하이펑 교수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서양학문방식의 주도하에 왜곡되고 파괴되어 우리의 현실생활과 동떨어지게 된 유가윤리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전지구적인 문화적 혼란과 외부세계의 강렬한 자극에 맞서 유가윤리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 의의: 유가윤리를 국지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사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가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소통의 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횡단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2015년 개최 실적

□ 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 한스-헬무트간더(Hans-Helmuth Gander) 교수 초청강연(2015.04.24)

○ 주제: 「안전과 안전감:우리가현재 처한 삶의 개방성에 대한 윤리학적·인간학적 논평」

○ 내용: ‘처해있음’이 자기 및 세계를 개방하는 기능에 대한 하이데거의 통찰을 토대로 삼아, 한스-헬무트간더 교수는 이 통찰이 안전이라는 현상에 대한 물음을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한스-헬무트간더 교수는 두려움이라는 현상의 존재론적 구조연관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라는 현상을 연구하고, 안전이라는 문제 속에 내재한 구조적 역설을 드러낸다.

○ 의의: 현대 한국사회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난 세월호 침몰을 비롯한 많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윤리학적이고 인간학적 논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이론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선진적 사례로 평가된다.

□ 일본 동경대학교 미노와 켄료(蓑輪顯量) 교수 초청강연(2015.06.06)

○ 주제: 「일본인의 의식세계 형성과 불교」

○ 내용: 일본인의 의식세계 형성과정에서 불교와 연관된 일본인의 생사관, 불교가 문화에 미친 영향, 아시아 불교 전파와 전개과정에서 불교와 예술, 사회·정치와 불교의 관련성에 관한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미노와 켄료 교수는 2011년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때의 상황을 통해 불교와 정치·행정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일본인의 의식세계 형성에 미친 불교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 의의: 불교를 예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대적 관계와의 연관 아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단의 횡단적 사유의 취지와 부합한다.

4) 외국어강좌 운영

최근 2년간 총 17과목의 외국어강좌를 개설, 운영했다. 2014년 1학기까지는 외국어 강좌 준비단계로 볼 수 있으며,

2014년 2학기부터 외국어 강좌를 본격적으로 개설, 운영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했다.

- 2013년 2학기(1과목):미학연구(영어)
- 2014년 1학기(2과목):천태화엄사상연구(영어)
문화예술철학특강(영어)
- 2014년 2학기(7과목):공맹철학연구(중국어)
담론이론연구(독일어)
동서윤리학특강(영어)
동아시아불교연구(일본어)
사회·정치와철학(독일어)
이론과실천(영어)
현대유럽철학연구(영어)
- 2015년 1학기(7과목):동서철학연구방법론비교(영어)
동양근현대철학연구(중국어)
정치철학연구(독일어)
한국유도불교섭사연습(일본어)
헤겔철학연구(독일어)
문화·예술과철학(영어)
해석학연구(영어)

5)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 개최

2015년 2월 20일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갈등과 화해, 주체와 타자, 보편과 다원」이라는 주제로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진철학연구자들의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연구역량을 증진시키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전남대 철학과와 東京大 人文社 系 硯科 哲 硯室・インド哲 佛 硯室이 수개월 간의 협의와 준비를 거쳐 성사시켰다. 양 대학교 대학원생 중 각각 6명씩이 발표에 참여했으며, 사업단 참여교수인 조운호 교수가 총괄 진행을 맡았다.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발표 현황

- 김성부(박사과정), 「연기설의 촉과 듀이의 경험」
- 김용은(박사과정), 「퍼트남과 사실/가치 이분법」
- 우동필(박사과정), 「십이연기에서 자아의 구성」
- 이무영(박사과정), 「Ego cogito와 Res cogitans」
- 정소라(박사과정), 「아렌트 판단이론의 실용주의적 해석」
- 조배균(박사과정), 「법장의 화엄사상에서 다원성의 통합 방식」

○ 동경대학교 대학원생 발표 현황

- 楊潔, 「유불도 삼교간 갈등과 화해의 한 측면」
- 野道彦, 「불교 교단에 있어서의 이설의 양상」
- 中島立博, 「분할법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한정성’」
- 葛谷潤, 「이성적 주체에 대한 타자의 필요성」
- 松浦和也, 「과이노메나의 구조: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의 한 측면」
- Giglio Emanuele Davide, 「日蓮의 갈등과 화해」

○ 전남대·동경대 대학원생 학술교류 심포지엄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향후 학술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역량 영역>

6 사업단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6.1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달성 노력

1)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팀 구성

○ 사업단은 횡단형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팀을 구성했다. 자생적 한국철학의 모형 탐색을 위한 [학문 횡단 연구팀] (동서철학 횡단형, 철학-타학문 횡단형)과 미래기반 인문복지를 지향하는 [이론-실천 횡단 연구팀]을 운영했다. 학문 횡단 연구팀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철학과 타학문을 아우르는 핵심영역을 선정하여 탐구하고, 한국적 사유의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론-실천 횡단 연구팀은 미래기반 인문복지 모형과 연관된 핵심영역을 선정하여 탐구하고, 한국적 복지 모형에 맞는 철학적 틀을 갖추어 핵심연구영역을 제공했다.

(1) 학문 횡단 연구팀 핵심연구영역

- 동서철학 횡단형: 인식과 진리, 자연과 인간, 사회와 국가, 도덕과 법, 자아 정체성
- 철학-타학문 횡단형: 언어 인지와 의사소통, 문화사와 지성사, 생명윤리와 공학윤리, 예술과 미학, 지역지구화와 지구지역화

(2) 이론-실천 횡단 연구팀 핵심연구영역

- 사회적 소외와 문화적 소외, 사회복지와 인문복지, 인문정신과 인문복지, 사회·문화적 인문교육의 이론과 실천, 지역사회와 인문교육, 지역 고전 연구

2)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단 조직구성 및 역할

○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조정부, 학술지원부, 대외협력부, 취업지원부, 사업평가부를 조직하여 운용했다.

(1) 기획조정부

- 전체 사업을 기획한다.
- 세부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한다.
- 사업운영에 필요한 회의를 개최한다.

(2) 학술지원부

- 철학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저서를 기획하고 출판한다.
- 철학교실팀을 운영한다.
- 국내 학술세미나와 학술심포지엄을 관리한다.
- 대학원생 연구를 지원한다.

(3) 대외협력부

-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 해외연수 프로그램, 해외석학초청강연 프로그램, 국제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시행한다.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상호 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4) 취업지원부

- 대학원생의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한다.
-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5) 사업평가부

-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자체평가 하여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한다.
- 외부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다.

3)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달성 노력

(1)연구실적 향상을 위한 비전 달성 노력

☐ 연구 실적

- 참여교수 연구 실적: 국제학술지논문(A&HCI) 1편
국내학술지논문 30.5편
저서 및 역서 11권
국제학술대회 발표 8회
국내학술대회 발표 12회

- 신진연구인력 연구 실적: 국내학술지논문 17.5편
저서 및 역서 2권
국내학술대회 발표 6회

-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국내학술지논문 21편
국제학술대회 발표 7회
국내학술대회 발표 10회

☐ 최근 2년(2013. 09-2015. 08)목표치 대비 연구실적

○ 참여교수

- 연구목표치가 50편(10인×5편)인데, 국제학술지(A&HCI)에 논문 1편을 게재하고, 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논문 30.5편을 게재하고, 단행본 11권을 저술하여 총 45.28편(목표치 대비 90%)의 실적을 산출했다.
- 1인당 목표실적은 연평균 2.5편인데, 2.26편을 달성했다.

○ 신진연구인력

- 연구목표치가 15편(3인×5편)인데, 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논문 17.5편을 게재하고 단행본 2권을 저술하여 총 18.83편(목표치 대비 125%)의 실적을 산출했다.
- 1인당 목표실적은 연평균 2.5편인데, 3.13편을 달성했다.

○ 참여대학원생

- 연구목표치가 21편(13인×1.6편)인데, 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논문 21편을 게재하여 총 21편(목표치 대비 100%)의 실적을 산출했다.
- 1인당 목표실적은 연평균 0.8편인데, 0.8편을 달성했다.

□ 목표치 대비 연구실적 평가

○ 최근 2년간 사업단의 전체적인 연구실적은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학문 횡단 연구 향상을 위한 비전 달성 노력

□ 학술세미나

○ 2015년 5월 1일

- 학술대회명: <2015년 철학적 횡단 세미나>
- 주제: 몸과 인지

○ 성격 및 분야

- 사업단은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학문적 탐구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고,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학술세미나는 8명의 발표자 가운데 철학 전공자가 두 명(동양, 서양)이며, 나머지는 철학 이외의 분야(의학, 법학, 언어학, 윤리학, 영화, 음악)에서 선정되어 ‘횡단적 사유’를 지향하는 세미나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사업단은 이 학술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이 최근 들어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인지과학과 인문학과의 융합적 탐구의 실재를 몸소 체감하고, 자신의 학문 분야와 가질 수 있는 이론 실천적 가능성에 주목했다. 세미나의 결과물은 2015년 8월에 『몸과 인지』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사업단에서는 향후 <철학적 횡단 세미나>를 연차적으로 개최하고 그 성과를 총서 시리즈로 출판할 계획이다.

○ 발표자

- 강신익, 「체화된 인지와 몸의 분류」,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태경, 「법과 인지: 인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본 법」,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센터 박사후연구원
- 김동환, 「인지언어학적 탐구의 가능성: 개념적 혼성 이론을 중심으로」, 해군사관학교 영어과 교수
- 박병기, 「몸의 습관화와 도덕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이상옥, 「왜 고양이와 개는 우리와 영화를 보지 않을까?: 몸, 두뇌, 환경 그리고 영화」, 부산대학교 강사
- 이영의, 「체화 개념의 지도 그리기」, 강원대학교 HK사업단 교수
- 이향준, 「도(道)를 아십니까?」, 전남대학교 철학과 Bk21 플러스사업단 연구교수
- 정혜윤, 「음악적 제스처의 체험적 토대에 관한 인지학적 해명」,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음악학부 교수

□ 국내전문가 초청강연(6회)

국내전문가 초청강연회는 총 6회를 개최했으며, 주로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청했다. 사업단은 지역성뿐만 아니라 특정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여러 분야의 전문연구자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연구영역의 접근을 시도했다.

○ 2014년 2월 28일

- 정세근, 「문제현실론: 철학에서 전통과 창조의 문제」,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 전통을 수호하는 공자, 비판정신을 가진 노자, 당위의 문제를 거론하는 맹자, 실존을 발견한 장자, 후왕을 위한 장자 등을 통해서 전통과 창조의 문제를 사상적 횡단으로 접근했다.

○ 2014년 2월 28일

- 심철민, 「원근법과 공간묘사의 변천: 『상징형식으로서의 원근법』의 논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학과
- 원근법적인 공간관이 변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논하는데, 이것은 사업단의 연구방향 중에 하나인 철학과 타학문의 횡단의 전형을 보여준다.

○ 2014년 4월 15일

- 최영진, 「茶山의 經典註釋에 나타난 情感의 道德的 機能: 『孟子要義』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교수
- ‘도덕의 기초’ ‘도덕판단의 보편적 기준’ ‘도덕적 수양’이라는 문제를 다산 경전주석에서 해답을 찾는 강연이다.

○ 2014년 9월 19일

- 강신준, 「오늘, 다시 읽는 마르크스의 <자본>」,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자본주의의 경제구조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빼앗긴 이유와 되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 2014년 10월 13일

- 김선희, 「개인 동일성과 개인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초빙교수
- 자아의 정체성과 자아의 동일성의 문제와 인격과 몸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자아를 탐구하는 강연이다.

○ 2015년 1월 15일

- 양선이, 「흠의 도덕감정론」,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 흠에게 있어 도덕적 선은 사회구성원들의 관습과 규약의 결과로 그들 스스로 반성적으로 승인한 도덕적 가치이며, 그 때만 도덕적 선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 연구팀토론회정례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은 하나 이상의 연구팀에서 활동했다. 각 연구팀은 격월로 정기 모임을 갖고 연간 연구 계획을 발표·토론하며, 이 가운데 연구팀의 비전과 부합하면서 독창적 학문성을 갖춘 주제는 집중 워크숍에서 발표하도록 유도했다.

- 학문횡단연구팀:참여교수5인,신진연구인력A·B,참여대학원생
- 이론-실천횡단연구팀:참여교수5인,신진연구인력C,참여대학원생

□ 집중워크숍개최

○각연구팀에서선발된연구자들은매년집중워크숍에서다른연구진으로부터피드백을받았다.학문적가치가높은연구결과는학술지원부의심의를거쳐국내외저명학술지투고및게재를지원했다.

□ 학술지원부의활성화

- 학술지원부는집중워크숍에서다듬어진연구결과가국내외저명학술지에게재되도록지원했다.
- 한국연구재단등재지투고및게재지원을위해관련분야전문가를멘토로지정하고단계별로세부 지원했다.
- 국제저명학술지학술대회발표와논문게출을위해해당언어권전문가를학술위원으로위촉하고지원했다.

(3) 이론-실천 횡단 연구 향상을 위한 비전 달성 노력

참여교수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들은 이론-실천 횡단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인문학, 소외계층인문학, 청소년철학교실, 어린이인문학, 병원인문학, 교사인문학, 중등학교인문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인문학 대중화를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했다. 인문학 대중화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시민인문학강좌> 지원

- 주제: 빛피 인문학, 마이너리티와 함께 인문공감의 길을 내다 - 인문광산(光山)에서 인문광주(光州)로 -
- 참여자: 박구용(참여교수: 연구책임책자), 김현(신진연구인력), 류근성(신진연구인력)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광산구청,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 사업내용: <시민인문학강좌>의 ‘빛피 인문학’은 전체 16개의 강좌에 노동자,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에 이르는 마이너리티 계층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공직자, 부녀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참여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인문학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전체 16개 강좌의 내용도 인문학의 전반적인 영역을 강좌 참여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인문학 고전, 예술, 철학, 문학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 ‘빛피 인문학’은 인문적 성찰의 일상화 및 인문공감을 형성할 주체를 ‘사회·문화·정신적 마이너리티 계층’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공존·공생의 인문도시 광주를 일궈낼 주된 동력을 타자적 관점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는 ‘적극적 마이너리티 정신’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 2014년도 <인문도시> 지원

- 주제: 인문도시 광산(光山), 빛피인문학과 함께 세계시민을 향한 물꼬를 트다 - 인문도시 광산에서 인문자치도시 광산으로 -
- 참여자: 박구용(책임교수: 연구책임자), 류근성(신진연구인력), 김현(신진연구인력)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산구청,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 사업내용: 2014년도 인문도시지원 사업과제로 27개 강좌를 광산학 강좌·인문학지도자과정·문화예술인강좌·광장인문학·마이너리티인문학·인문고전학교 6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었다. 사업팀은 광산학 강좌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광산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문학 관련 종사자들의 소통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문 담론의 중심점을 형성하고, 광산의 인문자산에 대한 인문적 해석을 통해 인문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자생적 인문학 공부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인문학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2014년 <광주젠더포럼>

- 주제: 소외계층여성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및 여성 활동가 워크숍
- 참여자: 정미라(참여교수: 연구책임자), 김현(신진연구인력)
- 지원기관: 광주여성재단, 철학연구센터
- 사업내용: 2014년 광주젠더포럼 사업은 <인문학강좌> 18강좌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인문학강좌>는 탈성매매 여성 및 미혼모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탈성매매 여성들과 미혼모들의 사회·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고취시켜 건강한 자아상과 사회상 형성을 안내하고, 인문학을 매개로 여성들의 계층 간 격차를 극복하여 여성주의적 연대 의식을 형성했다. <워크숍>은 지역사회 여성 활동가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문학 강좌 개설 기관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 및 교육·보육분과회원들과 함께 교육·보육복지 실천방안들을 논의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환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 <청소년철학교실>

- 주제: 청소년철학교실
- 참여자: 박의연 외 2명
- 지원기관: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 사업내용: 사업의 연속성 상에 있는 <청소년철학교실> 프로그램은 동양·서양 철학 및 인문학 고전을 통해 현재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사유 연습을 위한 강좌다.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해마다 4학기의 강좌를 운영해 오면서 참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각종 외부 기관과 교육단체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탈성매매 지원시설, 보호관찰시설, 소년원, 복지단체, 지역 공부방 등 외부 기관으로 강좌를 확대하고, 광주지역 중·고등학교(경신중, 금호중, 광주제일고, 광덕고, 광주고, 상무고, 설월여고, 첨단고, 광주전자공

고, 살레시오고 등)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해남고, 완도고), 경남지역(거창여고)의 학교로 일부 찾아가는 강좌로 변화를 준 것은 청소년철학교실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의 결과이다. <청소년철학교실>은 다양한 청소년 철학-인문학 프로그램 및 강의 모형을 도입, 운용할 수 있는 철학-인문학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주된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읽기와 발표, 토론 및 글쓰기 학습방법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체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능동적 학습참여자로서의 교육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어린이인문학>

○ 주제: 희망 어린이인문학

○ 참여자: 이향준(신진연구인력)

○ 지원기관: 삼성그룹 사회봉사단, 희망네트워크광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 사업내용: <어린이인문학>은 철학과 5명과 국어국문학과 5명의 전공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광주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30개소를 희망파트너로 선정하고, 1명이 3개 아동센터를 각각 1년에 30번 직접방문 교육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성·감성·지성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타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우리 공동체의 형성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사유와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병원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우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통해 환우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며, 원활한 사회적 소통기능을 향상하고자 했다.

□ <아세교육협동조합> 운영

○ 주제: 마인드 힐링, 자연음식, 시민인문학 등

○ 참여자: 이중표(참여교수), 조윤희(참여교수)

○ 사업내용: <아세교육협동조합>은 대중의 인문학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이다. 동대학원 재학생과 본 사업단 출신의 철학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2014년 설립한 <아세교육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 동구를 근거지로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미래 인문복지를 위해 마인드 힐링·자연음식·시민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다.

□ 2015년 <시민자유대학> 설립

○ 참여자: 박구용(참여교수: 이사장), 조윤희(참여교수: 이사), 류근성(신진연구인력: 이사)

○ 설립일자: 2015년 06월 25일

○ 사업내용: 현대의 시장논리를 배제하고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시민자유대학>이다. <시민자유대학>은 2013~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교수 등을 중심으로 시민자유대학이 설립되었다. 시민자유대학은 9월 광주 광산구에 제1캠퍼스를 설립하고 내년 3월 개강할 예정이다. 2년 내 2·3캠퍼스를 추가로 설립하고 이후 광주에 15~30개의 캠퍼스를 설립해 지속가능한 시민대학 운영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4)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비전 달성 노력

□ 국제학술지(A&HCI)논문(1편)

○ 저자: Kim Su Rasmussen

○ 논문명: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Blume'

○ 학회지명: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51:3

○ ISSN: 0037-1939 eISSN: 1911-026X

○ 발행일: 2015년 8월 12일

○ 수록페이지: pp. 213-224

○ 연구목적: 논문은 Paul Celan의 시인 'Blume' 을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시의 초고와 최종원고 사이의 텍스트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8회)

- 김상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 공동결정인가?」, 베트남, 베트남사회과학원, 2013.11.
- 김상봉, 「어려운 민주주의」, 베트남, 베트남사회과학원, 2013.11.
- 노양진, 「신체화된 인지와 은유」, 대한민국, 동아시아법철학회, 2014.08.
- 양순자, 「법가 사상에 있어서 효와 군주권의 조화: 한비자 「충효」 편을 중심으로」, 중국, 홍콩시립대학, 2014.03.
- 양순자, 「조선 도서역의 정초: 여현의 선천후천설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연구재단 한국역학연구단/대만중국철학회, 2014.07.
- 양순자, 「조선 자연학과 서양 과학의 만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2015.08.
- 최대우, 「사상의학의 미래」, 일본, 사상의학회, 2013.07.
- 최대우, 「사상체질 분류의 이론적 근거」, 대한민국, 한국의사학회, 2013.09.

□ 해외석학 초청강연(6회)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총 6회를 개최했으며, 참여교수, 신진연구,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강연 및 토론을 실시했다. 사업단은 6인의 해외석학(중국 3인, 일본 2인, 독일 1인)을 초청하여 국제적 횡단연구의 활성화에 노력했다.

- 2013년 11월 27일
 - 장웬량(張文良), 「고대 중국의 진리관」, 중국 인민대학교 철학과 교수
 - 유가와 불가 도가의 접점을 통한 새로운 진리관의 방향을 설정하여 학제적 횡단 사업의 취지와 일치하는 초청강연이었다.
- 2014년 3월 10일
 - 나베시마 고지로(鍋島弘治朗), 「조망과 관점에 대한 철학적 탐구: 세 개의 산과 하프 돔」, 일본 간사이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 철학분과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지언어학과 관련한 학제적 연구의 발판이 되었다.
- 2014년 3월 14일
 - 방하오판(方浩范),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동인과 그 정치적 장애: 중·한·일의 “문화공동체”에 대한 태도」,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문화적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횡단의 시도를 제공했다.
- 2014년 3월 21일
 - 징하이펑(景海峰), 「지구촌화 속의 유가윤리에 대한 반성적 사유」, 심천대학교 철학과 교수
 - 유가윤리를 국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지구촌 속에 사고한다는 점에서 유가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었다.
- 2015년 4월 24일
 - 한스-헬무트 간더(Hans-Helmuth Gander), 「안전과 안전감: 우리가 현대 처한 삶의 개방성에 대한 윤리학적-인간학적 논평」,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교수
 - 세월호 침몰을 비롯해 한국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안전에 대한 윤리학적-인간학적 논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초청강연이었다.
- 2015년 6월 6일
 - 미노와 켄료(蓑輪顯量), 「일본인의 의식세계 형성과 불교」,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 불교와 예술·정치·사회 등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단의 횡단적 사유의 취지와 상통한다.

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① 연구 비전에 맞는 연구진 구성

<표 9> 사업단장 재임 현황

연번	성명	재임기간 (YYYYMM-YYYYMM)	단장변경 사유
1	노양진	201309-201508	-

연구 비전에 맞는 연구진 구성

1)사업단장의연구 · 행정역량

(1)학위및재직경력

○사업단장노양진교수는1993년에미국서던일리노이대학교(SouthernIllinoisUniversityatCarbondale)에서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양진교수는1993년부터전남대학교철학과에부임해재직하고있으며,학과장과대학원주임교수를역임했다.

○전남대학교학술위원회,국제학술교류심의위원회,입학관리위원회위원을역임했다.

(2)학회및대외활동경력

○현재 <세계인문학포럼> 자문위원을맡고있으며,범한철학회부회장,대한철학회부회장,새한철학회부회장등을역임했다.

○2008년7월-8월제22차세계철학자대회철학방법론분과좌장을맡았다.

○2005년한국학술진흥재단서양철학전문위원(PM)을역임했다.

(3)수상경력

○2012년전남대학교교육우수교수상수상

○2013년전남대학교교육우수교수상수상

○문광부우수학술도서(『상대주의의두얼굴』,서광사,2007,저서)선정

○문광부우수학술도서(『도덕적상상력』,서광사,2008,역서)선정

○문광부우수학술도서(『몸·언어·철학』,서광사,2009,저서)선정

○문화체육관광부우수교양도서(『병원인문학』,전남대학교출판부,2012,공저)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몸이 철학을 말하다』,서광사 2014, 저서) 선정

○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나쁜 것의 윤리학』,서광사, 2015, 저서) 선정

(4)연구역량

- 주요연구관심분야는언어철학, 심리철학, 윤리학, 철학방법론이며, 특히인지과학적탐구와연계된체험주의적시각을확장함으로써지속적인연구성과를축적해오고있다.
- 최근유학과불교, 노장철학등동아시아철학분야와의학제적탐구로관심영역을넓힘으로써한국철학의새로운사유모형의탐색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 노양진교수의주요저·역서와논문은다음과같다.

-저서

- 『현대철학과언어』, 철학과현실, 2002(공저).
- 『공학윤리』, 철학과현실, 2003(공저).
- 『상대주의의두얼굴』, 서광사, 2007.
- 『몸·언어·철학』, 서광사, 2009.
- 『병원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공저).
-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2014.
- 『나쁜 것의 윤리학』, 서광사, 2015.

-역서

- 마크존슨, 『마음속의몸』, 철학과현실, 2000.
- G. 레이코프·M. 존슨, 『몸의철학』, 박이정, 2002(공역).
- G. 레이코프·M. 존슨, 『삶으로서의은유』, 수정판, 박이정, 2006(공역).
- 마크존슨, 『도덕적상상력: 체험주의윤리학의새로운도전』, 서광사, 2008.
- 힐러리퍼트남, 『사실과가치의이분법을넘어서』, 서광사, 2010.

-주요논문

- 1993 「데이빗슨과개념체계의문제」, 『범한철학』, 제8집(1993봄).
- 「Rorty's Critique of Philosophy」, 『범한철학』, 제8집(1993봄).
- 「퍼트남의내재적실재론과상대주의의문제」, 『철학』, 제39집(1993봄).
- 1995 「체험주의의철학적전개」, 『범한철학』, 제10집(1995봄).
- 「로티의듀이해석」, 『철학연구』, 제54집(1995봄).
- 1996 「번역은비결정적인가?」, 『철학』, 제48집(1996가을).
- 1998 「지칭에서의미로」, 『철학』, 제56집(1998가을).
- 「굿맨의세계만들기」, 『철학연구』, 제68집(1998겨울).
- 1999 「체험주의의은유이론」, 한국분석철학회편, 『언어, 표상, 세계』,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9.
- 「비트겐슈타인과철학의미래」, 한국철학회편, 『철학사와철학, 한국철학의패러다임형성을위하여』(『철학』별책4권),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9.
- 「인지과학과철학적탐구」, 『범한철학』, 제20집(1999가을).
- 2000 「실재론과반실재론을넘어서」, 『철학적분석』, 창간호(2000봄).
- 2001 「이성의이름」, 『철학적분석』, 제3호(2001여름).
- 「개념체계의신체적기반」, 『철학』, 제68집(2001가을).
- 노양진·김양현, 「존슨의칸트해석: 상상력이론을중심으로」, 한국칸트학회편, 『칸트와현대영미철학』(『칸트연구』, 제8집),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1.
- 「가르기와경험의구조」, 『범한철학』, 제24집(2001가을).
- 2002 「설의지향주의적의미이론」, 한국철학회편, 『현대철학과언어』(『철학』, 제69집별책),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2.
- 「로티와문학의미래: 진리와문학문화」, 『문학과종교』, 제7권, 1호(2002여름).
- 「퍼트남과철학의재건」, 철학연구회편, 『현대철학의정체성과한국철학의정립』(『철학연구』별책),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2.

- 2003 「비트겐슈타인의상대주의」, 『철학』, 제75집(2003여름).
- 2004 「다원성과다원주의:신체화된경험과다원주의의제약」, 『철학연구』, 제89집(2004봄).
「규범성의자연주의적탐구」, 『범한철학』, 제32집(2004봄).
「몸의철학적담론:몸과마음의이원론을넘어서」, 『철학연구』, 제27집(고려대철학연구소, 2004).
「포스트모더니즘과다원주의:로티와리오타르」, 『범한철학』, 제34집(2004가을).
- 2005 「경험으로서의가치」, 『범한철학』, 제39집(2005겨울).
- 2006 「상상력의윤리학적함의」, 『범한철학』, 제41집(2006여름).
- 2007 「다원주의적문화해석:체험주의적접근」, 『철학연구』, 제101집(2007봄).
「의미와의미지반」, 『범한철학』, 제45집(2007여름).
「도덕의영역들」, 『범한철학』, 제47집(2007겨울).
- 2008 「기호적경험의체험주의적해명」, 『담화와인지』, 제15권1호(2008봄).
- 2009 「틀뢰즈와시물라크르의의미론」, 『철학연구』, 제110집(2009여름).
「데이빗슨의은유이론」, 『범한철학』, 제55집(2009겨울).
- 2010 「예술의기호」,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0집(2010봄).
「언어와경험:괴리와거리」, 『철학연구』, 제116집(2010겨울).
「그림자개념에관하여」, 『범한철학』, 제59집(2010겨울).
- 2011 「김형효와사실성의철학」, 『철학』, 제108집(2011가을).
「감성의갈래」, 『감성연구』, 제3집(전남대학교호남학연구원, 2011).
「퍼트남과존재론없는윤리학」, 『철학연구』, 제120집(2011겨울).
- 2012 「설과사회적실재의구성」, 『범한철학』, 제64집(2012봄).
- 2013 「덕과 윤리」, 『범한철학』, 제71집(2013겨울).
- 2014 「몸의 침묵」, 『범한철학』, 제73집(2014여름).
「의사소통의 기호적 구조」, 『범한철학』, 제75집(2014겨울).

(5) 행정역량

- 학과장과대학원주임교수를역임하면서사업단운영에필요한행정역량을축적했다.
- 학부와대학원교과과정전체를기획운영한경험을축적하고있다.
- 다양한학회활동을통해대학과학문활동전반에대한깊은이해를갖고있다.
- BK21 플러스1-2년차(2013.09-2015.08)년도사업단장으로서주도적역할을수행했으며,그경험은향후사업단운영에중요한토대가될것이다.

(6) 사업단운영및발전의지

- 지역거점대학으로서전남대학교철학과대학원을선도적인학문후속세대양성기관으로발전시키려는확고한신념을갖고있다.
- 산학협력단,사업참여기관,산업체등과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사업이원활히이행될수있도록최대한의역량을발휘할것이다.
- 운영위원회와자체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각단계별사업추진과정과성과달성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하며,이를적극적으로사업운영에반영할것이다.
- 사업단을관련분야에서최고의경쟁력을갖춘철학전문인력양성대학원으로특성화하여,양성된인력이성공적으로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7) 단장의권한

- 단장은사업단의인사와재정권한을장악함으로써사업운영의안정성을확보할것이다.
- 단장은운영위원회의장을겸임함으로써사업운영의효율성을확보할것이다.

2)사업단연구진구성

(1)참여교수의연구역량

- 최근2년간사업단참여교수(10명)의총 연구실적은45.28편이다.국제학술지(A&HCI) 논문 1편 연구재단등재지 논문30.5편, 저·역서11권등양적연구실적에비추어보면연구진은일정수준이상의연구역량을갖추고있다.
- 최근 2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8건, 국내학술대회 12건을 수행하면서 연구역량을 쌓고 있다.
-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도시, 시민인문강좌, 소외계층인문학, 인문주간, 병원인문학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참여교수의전공영역별분포

- 참여교수10명의전공영역별분포를보면동양철학4명(한국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동아시아불교), 서양철학6명(독일철학, 프랑스철학, 영미철학)으로구성되어있다. 연구진이지역, 시대, 전공분야별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횡단적공동연구수행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

(3)횡단형연구수행의적합성

- 참여연구진이한국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프랑스철학, 독일철학, 영미철학전공자들로구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정치철학, 사회철학, 심리철학, 미학, 언어철학등다양한영역에걸쳐있어동양철학과서양철학, 철학과타학문을횡단하는학제적연구를지향하는사업단의비전에부합하는연구진을갖추고있다.

(4)우수한신임교수의참여

- 사업단은2013년 BK21 플러스 사업을 염두에 두고신임교수2명(외국인교수1명포함)을채용하여사업단연구진의인적역량을강화했다.
- 외국인 교수 Kim Su Rasmussen은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프랑스철학, 미학, 개념사를전공했으며문예비평과예술비평으로관심영역을확장하고있다. 독일과미국에서수학했고학위취득후덴마크코펜하겐대학교교수(2004-2008),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전임대우강의교수(2009-2011)로재직했다. 최근 국제학술지(A&HCI)에 논문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Blume’ ”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2015)을 게재했다. 다수의국제학술지연구실적과더불어폭넓은해외네트워킹을통해사업단의국제화에기여할것이다.
- 양순자교수는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 중국고대철학, 윤리학, 법철학등을전공했다. 동서철학횡단을통해새로운사유모형을탐색하는사업단의연구수행에기여할것이다. 서구권에서활동하고있는중국철학연구자들과 2012년에Dao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Han Fei (Springer, 2012)를공동집필했다. 최근 2년 동안 국제학술대회에서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5)참여교수별관심분야소개

- 김상봉(참여기간: 2013.09.01.-2014.07.08)

주요관심분야는칸트철학, 그리스철학, 정치철학, 사회사상으로서철학과타학문의횡단을시도하는연구자다. 『다시, 민주주의를말하다』(휴머니스트, 2010)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과학등우리사회의현실에대한정확한진단과더나은세계를향한참여와실천을모색하고 『모색: 씨알철학과공공철학의대화』(씨알재단, 2010)은한국의씨알사상과일본의공공철학의 대화와소통을피하고자한글이며, 『학교를버리고시장을떠나라』(메이데이, 2010)는학벌을위한학교, 시장을위한교육을비판하고교육의근본문제를다시생각하게하는글이다.

- Kim Su Rasmussen

주요 관심분야는 프랑스 철학, 미학, 개념사, 문예비평, 예술비평 등이다. 최근 연구 논문인 “Foucault’s Genealogy of Racism” (Theory, Culture & Society, 2011)는 프랑스 철학자 푸코의 인종 차별에 대한 ‘생명정치적(Biopolitical Government)’ 관점을 분석한 글이다. 또한 “The (Infinite Postponement of the) End of History: Kojève, Fukuyama, and Blade Runner” (『현대영미어문학회』, 2011)는 코제브와 후쿠야마의 역사 이론을 영화 Blade Runner에 접목하여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최근 논문 “The Globalization of Cliches and the Search for Pure Language” (『인문과학연구』, 2014)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 나타난 보편적 상투성 및 번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었는데 철학과 타학문의 학제적 연구의 성과이다. 국제 학술지(A&HCI) 논문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Blume’ ”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2015)은 Paul Celan의 시인 ‘Blume’ 을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시의 초고와 최종원고 사이의 텍스트적 관계를 분석했다.

○김양현

주요 관심분야는 칸트 철학, 영미 윤리학, 응용 윤리학이다. 공동 집필한 『병원 인문학』은 치유와 소통이라는 인문학 콘텐츠와 인문학 정신을 병원이라는 공간에 접목시킨 연구서로서, 철학과 타학문의 횡단을 시도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서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갈등과 소통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인문, 사회, 예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각도에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인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최근 연구 성과인 「칸트 철학의 생태철학적 비판과 반비판」(『사회와 철학』, 2014)은 칸트 철학을 생태철학이나 환경철학과 연관시켜 연구했다는 점에서 사업단이 추구하는 학제적 연구와 부합된다.

○노양진

주요 관심분야는 언어 철학, 심리 철학, 윤리학, 철학 방법론이다. 특히 인지 과학적 탐구와 연계된 체험주의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유학과 불교, 노장 철학 등 동아시아 철학 분야와의 학제적 탐구로 관심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자생적 한국 철학의 사유 모형 탐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는 『마음 속의 몸』(철학과 현실, 2000), 『상대주의의 두 얼굴』(서광사, 2007), 『몸·언어·철학』(서광사, 2009), 『몸이 철학을 말하다』(서광사, 2014), 『나쁜 것의 윤리학』(서광사, 2015) 등이 있다. 『몸이 철학을 말하다』는 유학과 불교, 노장 철학 등 동아시아 철학 분야와의 새로운 학제적 탐구를 모색하여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횡단하는 연구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나쁜 것의 윤리학』은 체험주의를 따라 윤리학의 핵심 주제를 도덕적 경험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박구용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 철학, 사회 철학, 법 철학, 미학, 문화 철학이다. 공동 집필한 『문화 및 문화 현상에 대한 철학적 성찰』(씨아 이알, 2012)과 『소통 인문학』(전남대학교, 2010)은 철학과 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연구로서 전자는 문화와 문화 현상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후자는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학문 횡단형 문제 찾기 교양 교육의 이념」(『인문학연구』, 2012)와 「역사 교육을 향한 철학적 제안」(『역사비평』, 2014)은 학문 횡단 이가 가능한 교양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과 철학의 접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비전에 일치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행복의 그림자」(『범한 철학』, 2013)은 행복 담론의 빛과 그림자를 밝히면서 자유의 최대화와 폭력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행복론을 지향한다. 「악의 사회 비판」(『가톨릭 철학』, 2014)은 상호주체성의 패러다임에서 정당화된 현대 사회를 시민 사회로 보고, 그로부터 악에 대한 비판의 근거와 동력을 찾았고, 「사회의 시선」(『사회와 철학』, 2014)은 철학적 담론에서 사회, 사회적인 것의 지평을 되물었다.

○양순자

주요 관심분야는 중국 철학, 윤리학, 법 철학 등이다. 특히 유가, 도가, 법가를 비롯한 중국 고대 철학의 다양한 흐름을 현대 정치 철학, 법 철학, 윤리학 적 관점과 접목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인 Dao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Han Fei (Springer, 2012, 공저)에 실린 “Shen Dao’s Theory of Fa and His Influence on Han Fei”는 중국 고대 철학자인 신도(慎到)와 한비자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법가의 이론을 법, 도덕,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최근 논문인 「한비자의 통치술-마음 ‘비움(虛)’과 ‘고요함(靜)’」(『범한 철학』, 2014)은 통치의 방법에서 노자와 한비자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도가와 법가의 횡단 연구이다. 게다가 고대 중국철학을 넘어서 한국유학의 도서학과 관련된 「여현의 선천후천설」(『동양철학』, 2014)과 「태극의 미완성된 자연화」(『동양철학』, 2015) 등의 논문이 있다.

○원승룡(참여기간: 2015.01.19 이후)

주요관심분야는현상학, 문화철학, 인식론 등이다. 『문화이론과 문화철학』(서광사, 2007)은 학문적 문화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즉 다양한 문화현상들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이론들 속에서 학문적 문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문화이론들을 섭렵하면서 문화연구의 방향을 개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었다. 최근 연구 성과인 「인식과 방법-기술 대 설명」(『범한철학』, 2014)은 인문-사회과학(특히 심리학, 경제학 등)의 현재 방법론적 문제들을 원용하여 철학적 방법론이 상호학문적 담론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중표

주요관심분야는종교철학, 시스템이론이다. 특히불교와현대철학사조를접목함으로써, 생태계의파괴, 자원의고갈, 환경의 오염, 인간성상실등의문제를불교적관점에서해결하고자모색한다. 『현대와불교사상』(전남대학교, 2010), 『불교와일반시스템이론』(불교시대사, 2004), 『불교와 양자역학』(전남대학교, 2014) 등일련의연구성과는본사업단의비전인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철학과타학문분야횡단의대표적인방법론을보여준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전남대학교, 2015)은 단순한 연기법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연기법에 따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인문학의 대중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

○정미라

주요관심분야는정치철학, 사회철학, 법철학, 여성철학이다. 번역서 『인권철학입문:정치적도덕적경험에비추어본인권의 철학적문제들』(21세기북스, 2012, 공역)은정치적·사회적으로중요한개념인인권의철학적근거를모색하는책이다. 인권의정당화문제를다루는이책은민주적인세계질서의창출을탐구한연구서이다. 철학이민주주의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를보여주었다는점에서이책의가치를높이평가할수있다. 최근 연구 성과인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 자기보존 욕망과 이성」(『철학논총』, 2014)은 인간의 자기보존 욕망과 이성의 능력을 서로 각기 다른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보존은 오직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만 실현될 수 있으며, 욕망과 이성, 그리고 자유를 상호 매개한다고 보았다. 저서 『철학의 이해』(철학과현실사, 2014)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17주제를 토론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이 주제는 현실속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는 주제들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

○조윤호

주요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불교다. 「원측 교체론의 사상적 기반」(『한국불교학』, 2010), 「정신에 대한 불교계의 이해: 이념과 현실의 이중주」(『범한철학』, 2011), 「화엄경의 여래장적 해석과 성불론」(『철학논총』, 2012), 「불교철학에서 내재와 초월(비교철학적 고찰)」(『동서철학연구』, 2013) 등불교관련논문을다수집필했으며, 불교와다른 분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철학적 탐구를 했다는 점에서본사업단의횡단적연구수행과 일치한다. 특히 저서 『원측 해심 밀경소의 심의식상품 연구』(한국중앙연구원, 2015)는 일본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인 후나야마 토오루(船山徹)와 국내연구진 4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저서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기획된 것이다.

○최대우

주요관심분야는한국유학, 조선후기실학, 사상의학이다. 학술진흥재단(현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주희의대표적성리학서인『주자대전』1-13권(한국학술정보, 2010)의번역사업에참여했다. 또한『이제마의철학』(경인문화사, 2009)에서사상체질의학을실증적관점에서연구함으로써철학과한의학의접목을시도하고있으며, 이제마의대표작인『동의수세보원역해』를주해했다. 또한 「이제마사상설의경험적구조」(『범한철학』, 2009), 「사상의학의 미래」(『범한철학회』, 2013), 「동의

수세보원 해석의 몇 가지 문제들」(『사상체질의학회』, 2013), 「사상 체질분류의 이론적 근거」(『범한철학』, 2014), 「이제마의 격치사물론」(『범한철학』, 2015) 등 다수의 사상의학 관련 논문을 집필하여 사상의학에 기여하고 있다.

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최근 2년)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1) 국제학회 활동

- 노양진: 세계인문학포럼 자문위원

2) 국제학술발표 활동

(1) 2013년도 실적

- 김상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 공동결정인가?」, 베트남, 베트남사회과학원, 2013.11.
- 김상봉, 「어려운 민주주의」, 베트남, 베트남사회과학원, 2013.11.
- 최대우, 「사상의학의 미래」, 일본, 사상의학회, 2013.07.
- 최대우, 「사상체질 분류의 이론적 근거」, 대한민국, 한국의사학회, 2013.09.

(2) 2014년도 실적

- 노양진, 「신체화된 인지와 은유」, 대한민국, 동아시아법철학회, 2014.08.
- 양순자, 「법가 사상에 있어서 효와 군주권의 조화: 한비자 「충효」 편을 중심으로」, 중국, 홍콩시립대학, 2014.03.
- 양순자, 「조선 도서역의 정초: 여헌의 선천후천설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연구재단 한국역학연구단/대만중국철학회, 2014.07.

(3) 2015년도 실적

- 양순자, 「조선 자연학과 서양 과학의 만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2015.08.

3) 국제학술지(A&HCI) 논문

- Kim Su Rasmussen,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Blume’ ,”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51:3 (2015.08).

②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1)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 사업단에서는 해외석학 초청강연을 총6회(중국 3회, 일본 2회, 독일 1회) 개최했으며,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강연 및 토론을 실시하여 국제적 횡단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1) 2013년도 실적

□ 중국 인민대학교 장웬량(張文良) 철학과 교수 초청강연(2013년 11월 27일)

○ 주제: 「고대 중국의 진리관」

○ 내용: 고대 중국인과 현대 중국인들의 진리관을 비교분석했다. 장웬량은 유가와 도가, 불가의 진리관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진리에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강의했고, 유불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는 유불도의 진리관에 대해 각각의 진리를 절대적인 면보다는 상대적인 면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 의의: 유가와 불가 도가의 접점을 통한 새로운 진리관의 방향을 설정하여 학제적 횡단 사업의 취지와 일치하는 초청강연이었다.

(2) 2014년도 실적

□ 일본 간사이대학교 영문학과 나베시마 고지로(鍋島弘治朗) 교수 초청강연(2014년 3월 10일)

○ 주제: 「조망과 관점에 대한 철학적 탐구: 세 개의 산과 하프 돔」

○ 내용: 이 연구는 조망과 관점의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주관성에 대한 피아제와 인헬러의 개념(Piaget & Inhelder 1956)과 레빈슨의 개념(Levinson 2003), 인지언어학의 개념(Langacker 1990, Ikegami 2005, Nabeshima, to appear)을 논의하고, 다음에 인쇄 매체와 인터넷 매체에서 모은 지도와 사진을 제시했다. 하프 돔의 여러 조망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으며 이 제약은 기본적으로 하프 돔에 대한 접근 경로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 의의: 철학분과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지언어학과 관련한 학제적 연구의 발판이 되었다.

□ 중국 연변대학 팡하오판(方浩范) 교수 초청강연(2014년 3월 14일)

○ 주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동인과 그 정치적 장애: 중·한·일의 “문화공동체”에 대한 태도」

○ 내용: 역사적 그리고 전통적 관점으로 볼 때, 중·한·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당연히 하나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여 이 “문화권”이 심각한 고통과 파괴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은 전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지역일체화의 추세와 조류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것은 동아시아 각국에 지역 “문화권”의 중건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이다.

○ 의의: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문화적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횡단의 시도를 제공했다.

□ 중국 심천대학교 정하이펑(景海峰) 교수 초청강연(2014년 3월 21일)

○ 주제: 「세계 지구촌화 속의 유가윤리에 대한 반성적 사유」

○ 내용: 유가윤리에 따르면, 산업화의 충격으로 우리의 삶도 그 현실적 생존 조건이 바뀌었고, 의식형태의 강렬한 해체는 현대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노선을 철저하게 전환시켰다. 특히 후자는 백여 년 동안 이어지면서 부단히 비판과 공격을 받아 서양학문방식의 주도하에 종종 왜곡되면서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유가윤리의 모습을 크게 파괴하여 우리의 감정과 갈수록 낮설게 되었고, 우리의 현실생활과도 갈수록 멀어지게 되었다. 전지구화라는 문화적 혼란과 외부세계의 강렬한 자극은 유가윤리에 대해 다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초를 세웠다.

○ 의의: 유가윤리를 국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지구촌 속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었다.

(3) 2015년도 실적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한스-헬무트 간더(Hans-Helmuth Gander) 교수 초청강연(2015년 4월 24일)

○ 주제: 「안전과 안전감: 우리가 현대 처한 삶의 개방성에 대한 윤리학적-인간학적 논평」

○ 내용: ‘처해있음’이 자기 및 세계를 개방하는 기능에 대한 하이데거의 통찰을 추진력으로 삼는 것이고, 이 통찰이 안전이란 현상에 대한 현재의 물음을 다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존재와 시간』에서 해명된 자기와 세계를 개방하는 ‘처해있음’의 본질에 대한 하이데거의 통찰을 출발점으로서 해서 그가 분석한 두려움Furcht이란 현상의 존재론적 구조연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실존론적으로 확보된 두려움이란 현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 현상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라는 인간학적으로 중요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안전이란 문제 속에 내재한 모종의 구조적 역설을 드러내는 것이다.

○ 의의: 세월호 침몰을 비롯해 한국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안전에 대한 윤리학적-인간학적 논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

□ 일본 도쿄대학교 미노와 켄료(蓑輪顯量) 교수 초청강연(2015년 6월 6일)

○ 주제: 「일본인의 의식세계 형성과 불교」

○ 내용: 일본인의 의식세계 형성과정에서 불교와 연관된 일본인의 생사관, 불교가 문화에 미친 영향, 아시아 불교 전파와 전개 과정에서 불교와 예술,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했다. 특히 미노와 교수는 2011년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 때의 상황을 통해 전후 불교와 정치·행정과의 관계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최후의 통과의례, 즉 장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불교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2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일본 대지진 때의 정부 측의 대응 방식은 불교 승려의 자원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이는 종교에 대한 행정 당국의 알레르기를 표출한 예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의의: 불교와 예술,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사업단의 횡단적 사유의 취지와 상통한다.

8.2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및 계획

1) 국제화 전략 계획

(1)국제적 학술활동계획

○ 양순자 교수는 2017년 3월 16-1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학회에서 “Moral Cultivation in the Xunzi: Centering on Fa(法, law), Lei(類, Analogy), Li(禮, Ritual Propriety)” 라는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 양순자 교수는 2018년 3월 22-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학회에서 “The Transformation of Ideas of N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라는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 Kim Su Rasmussen 교수는 2016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호주 시드니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개최되는 The Sixteenth Annual Meeting of the Foucault Circle 학회에서 “The Hermeneutics of Becoming: On Foucault's '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81-1982'” 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국제실적향상계획

○최근 2년참여교수1인당평균 0.1편인 국제학술지(A&HCI) 논문게재 실적을 4-5년차(2016.03-2018.02)에 0.6편, 6-8년차(2018.03-2020.08)에 0.8편으로 향상시킨다. 현재는 사업초기 단계일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지 투고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진연구인력의 실적 목표치는참여교수의실적 목표치에 준한다.

-4-5년차(2016.03-2018.02):0.6편

-6-8년차(2018.03-2020.08):0.8편

○ Kim Su Rasmussen 교수는 “The Sublime Object of Adoption: O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를 국제학술지(A&HCI)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다.

○ 양순자 교수는 “The Reconciliation of Filial Piety and Political Authority in Legalist Ideas: A Study of the Zhongxiao Chapter in the Hanfeizi” 를 Dao: 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다.

○ 인센티브제도활용

- 연구역량강화와동기부여를위해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실시한다.
- 논문게재, 국내외학술대회참가, 연구활동및기타실적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한다.
- 지도학생의국내외학술지논문게재, 학위취득, 저·역서출간등을고려해서지급한다.
- 연평균목표를상회하고우수한국제학술지에논문을게재한참여교수에게는특별인센티브를지급한다.

(3)해외유수연구센터와공동연구활성화

○미국하와이대학동서문화센터:저명한동서비교철학연구기관이며, 동아시아철학과영미철학의비교연구에탁월한연구성과를내고있다.

○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동아시아센터:동아시아사상을다양한관점에서비교연구하는기관으로동양철학과예술, 종교, 문학, 역사를횡단하는다양한연구자들로구성되어있다.

○일본동아시아불교연구회:인도라는사상적·문화적배경을갖는불교의동아시아적전개와변용양태를중심주제로삼아상호문화철학적관점에서연구하는전문연구단체이다.

○독일Philosophisch-PolitischAkademie, Gesellschaft fuer SokratischesPhilosophieren:시민인문학의관점에서철학아카

데미를 운영하며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철학의 이념을 학문적으로 확산함과 동시에 소크라테스적 교수법과 철학연구방법론을 연구·교육하는 기관이다.

(4) 국제 연구활동 계획(해외석학 초청강연)

매년 3회 이상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4-5차년(2016.03-2018.02)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계획은 다음과 같다.

- ☐ 原哲也(일본 동경대학교 철학과)
 - 강연일시: 2016. 02
 - 강연주제: 「돌봄의 현상학적 연구와 방법론」
- ☐ Michael Slote(미국 마이애미대학교 철학과)
 - 강연일시: 2016. 06
 - 강연주제: "Virtue in the Mencius"
- ☐ Daniel Hutto(호주 윌튼공대학교 철학과)
 - 강연일시: 2016. 11
 - 강연주제: "Wittgenstein's Ideas of Mind"
- ☐ Catherine Ceniza Choy(미국 버클리대학교)
 - 일시: 2017. 02
 - 강연주제: "Nursing and Care"

2) 국제화 전략의 우수성

(1) 다양한 전공영역

○ 참여교수의 전공영역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철학(4명)은 한국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동아시아불교를 전공하였고, 서양철학(6명)은 독일철학, 프랑스철학, 영미철학을 전공하였다. 연구진이 지역, 시대, 전공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연구전략을 횡단적으로 수행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단의 비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국제학회활동 참여

○ 사업단참여교수들은 현재 세계인문학포럼(노양진 교수/자문위원), 세계철학자대회(노양진교수, 김양현교수/분과좌장 역임), International Comparative Literature Association(Kim Su Rasmussen 교수/회원), Association of American Religio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양순자교수/회원), North American Korean Philosophy Association(Kim Su Rasmussen 교수/회원)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국제학회활동을 확대하여 향후 다양한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편집위원 등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연구실적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입교원 활용

○ 사업단은 BK21 플러스 사업을 염두에 두고 2013년도에 외국인 교수를 포함하여 신입교수 2명을 채용하여 국제화 역량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 Kim Su Rasmussen은 다수의국제학술지연구실적과더불어폭넓은해외네트워킹을통해사업단의국제화에기여할것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 양순자 교수는 동서철학협단을 통해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유 모형을 탐색하는 사업단의 연구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국제적 연구센터와 교류

○ 미국하와이대학동서문화센터, 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동아시아센터, 일본동아시아불교연구회, 독일 Philosophisch-PolitischAkademie, Gesellschaft fuer Sokratisches Philosophieren 등의 연구센터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참여교수의 국제화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교육연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9 참여교수 연구역량

9.1 연구비(최근 2년)

<표 10> 최근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단위: 천원)

항목	수주액(천원)		
	'13.9.1~'14.8.31	'14.9.1~'15.8.31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70,000	258,800	328,800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	-	-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	-	-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7,179	26,543	33,723
환산 참여교수 수	X	X	9.75

9.2 논문 및 저서(최근2년)

① 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기타국제학술지 및 저서 환산 논문 편수

<표 11> 참여교수 1인당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실적

항목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8	16.5	6	30.5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1.5	1.5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	-	-	-
학술 저서 환산 편수	국어	3	4.8888	5.3999	13.2887
	외국어	-	-	-	-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11	21.3888	12.8999	45.2887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X	X	X	4.6449
환산 참여교수 수		X	X	X	9.75

②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 및 저서의 우수성

가.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논문 및 저서의 우수성

<표 12>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 실적 목록

연번	논문명/ 저서명	논문게재/학술저서 정보		저자 중 참여 교수 성명	주저자 여부	객관적 우수성
		게재학술지명/출판사명	년월(YYYYMM)			
1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 Blume’ ”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201508	Kim Su Rasmussen	제1	국제저명학술지(A&HCI)
2	? 과국과 개벽 사이에서: 20세기 한국철학의 좌표계?	대동철학	201406	김상봉	제1	연구재단등재지
3	? 칸트철학의 생태철학적 비	사회와철학	201410	김양현	제1	연구재단등재지

3	판과 반비판?	사회와철학	201410	김양현	제1	연구재단등재지
4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201309	노양진	제1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5	??나쁜 것의 윤리학: 몸의 철학과 도덕의 갈래??	서광사	201501	노양진	제1	2015년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6	? 의사소통의 기호적 구조?	범한철학	201412	노양진	제1	연구재단등재지
7	? 악의 사회비판?	가톨릭철학	201410	박구용	제1	연구재단등재지
8	? 행복의 그림자: 자유와 폭력의 경계에서?	동서철학연구	201312	박구용	제1	연구재단등재지
9	? 한비자의 통치술: ‘마음 비움(虛)’ 과 ‘고요함(靜)’ 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201412	양순자	제1	연구재단등재지
10	??불교와 양자역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09	이중표	제1	?
11	? 고익진의 초기불교 해석?	한국불교학	201402	이중표	제1	연구재단등재지
12	??철학의 이해??	철학과현실사	201402	정미라	제1교신	?
13	?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 자기보존 욕망과 이성?	철학논총	201410	정미라	제1	연구재단등재지
14	? 불교철학에서 내재와 초월(비교철학적 고찰)?	동서철학연구	201312	조윤희	제1	연구재단등재지
15	? 東醫壽世保元 해석의 몇 가지 문제들?	사상체질의학지	201309	최대우	제1	연구재단등재지

나.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대표실적 우수성 제시

1) 대표실적 총괄

- 국제학술지(A&HCI) 논문 1편, 연구재단등재지 논문 14편이다.

2) 국제학술지(A&HCI) 논문(1편)

- 저자: Kim Su Rasmussen
- 논문명: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s 'Blume'
- 학회지명: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51:3
- ISSN: 0037-1939 eISSN: 1911-026X
- 발행일: 2015년 8월 12일
- 수록페이지: pp. 213-224
- 내용 및 의의: 논문은 Paul Celan의 시인 'Blume'를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시의 초고와 최종원고 사이의 텍스트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Blume'는 전체적으로 자율성의 미학(autonomous aesthetic)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텍스트간의 끝나지 않은(또는 비결정적인 inconclusive) 독특한(유일한) 표현(singular expression)의 가능성을 두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논문이다.

3) 학문횡단 연구 우수논문

- 저자: 조윤희
- 논문명: 「불교철학에서 내재와 초월(비교철학적 고찰)」
- 학회지명: 동서철학연구
-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 수록페이지: pp. 211-236
- 내용 및 의의: 본 논문은 동양의 불교철학과 서양철학을 학문적 횡단을 통해 연구한 주제이다. 중심내용은 내재와 초월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불교의 중심 사상들을 고찰함으로써 불교에서 초월의 의미론적 함의를 추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인식과 관련한 불교의 특징적 이해를 비롯하여 속제/진제, 윤회/열반, 중생/부처 등의 이념적 구도에서 어떤 '넘어섬'의 영역이나 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되는 공(성), 의타기(자)성, 중도, 열반, 해탈, 아뢰야식, 불성 등에 주목했다. 불교는 분명 일상 언어적 의미 층위에서 특정 인식과 가치의 경계나 한계로부터의 어떤 '넘어섬'으로서의 초월을 추구한다. 아울러 불교적 초월의 의미론적 함의는 소위 '내재적 초월론'이 특히 주목되며, 그것은 불교적 초월의 중심 모형으로서 현실에 대한 일방적 부정이나 긍정을 배제함과 동시에 현실을 떠나 이상의 영역을 설정하거나 절대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불교와다른분야(형이상학)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철학적 탐구를 했다는 점에서본사업단의횡단적연구수행과 일치한다.

4) 이론-실천 횡단 연구 우수논문

- 저자: 박구용
- 논문명: 「행복의 그림자: 자유와 행복의 경계에서」
- 학회지명: 동서철학연구
-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 수록페이지: pp. 5-13
- 내용 및 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에 대한 욕망은 항상 있었지만, 물질문명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는 것은 사업단의 '이론-실천 횡단 연구'에 속하는 인문복지학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목적인 행복 담론의 빛과 그림자를 밝히는 것이며, 자유의 최대화와 폭력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행복론을 지향하고 있다.

행복론이 불행한 의식에 빠지지 않으면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하며,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행복을 권리의 지평에서 정당화해야 한다. 논자는 자유와 폭력의 변증법적 관계를 기초로, 에피쿠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フロム과 마르쿠제의 긍정 심리학과 부정 심리학의 경계에서 상실된 자아를 찾아 행복 담론이 자기침잠과 자기연민에서 나와 바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논문은 행복만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이분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9.3 기타 연구의 우수성

1) 우수한 수상실적

(1)저술의학술상수상(2권)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2013. 09.

○ 학술적 우수성 : 체험주의의 전반적 성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심분야에서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지형도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저술은 철학적 탐구에서 몸의 중심성이라는 논제가 실천적 측면이 강한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을 규정해 왔던 유학과 불교, 노장철학의 이론적 구도를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 방법론의 기초임을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통해 동·서 철학의 새로운 대화의 통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저술은 몸의 중심성과 신체화된 인지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횡단하는 연구의 구체적 양상과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 2015년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 노양진, 『나쁜 것의 윤리학 - 몸의 철학과 도덕의 갈래』, 서광사, 2015. 01.

○ 학술적 우수성: 도덕주의적 가정을 넘어서는 도덕적 탐구가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가능한지, 신체화된 경험의 구조에 대한 체험주의의 해명에 의지해서 접근하고 있다. 노양진은 체험주의를 따라 윤리학의 핵심 주제를 도덕적 경험의 문제로 전환한다. 나아가 몇몇 문제와 논의는 체험주의의 기존 논의를 넘어서서 확장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주된 의의는 두 가지다. 첫째, 특정한 ‘ 좋음 ’ 을 전제한 기존의 윤리학이 사람들에게 ‘ ~해야 한다 ’ 라는 형태로 제시되어 서로 다른 ‘ 좋음 ’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이론적 난점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윤리학은 인간적인 ‘ 나쁨 ’ 의 양상들에 대한 회피를 강제하는 규범성의 확립과 함께 다양한 ‘ 좋음 ’ 의 추구를 위한 권고의 영역으로 도덕의 두 양상을 분리함으로써 윤리학적 논의를 위한 담론의 축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산학협력관련 추진 실적

참여교수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들은 시민인문학, 소외계층인문학, 청소년철학교실, 어린이인문학, 병원인문학, 교사인문학, 중등학교인문학 등에서 다양하게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I)>

○ 주제: 글로컬문화가치창출문사철(文史哲)융합인력양성사업단

○ 참여자: 참여교수 전체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지원기간: 2014.06-2015.08

○ 지원액: 450,000,000원

○ 사업내용: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 철학과가 참여한 이 사업은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글로컬(글로벌+로컬)’ 문화가치의 창출과 확산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히 호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써 호남문화와 아시아문화를 아우르는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문화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를 위해 ‘5(자과)+4(타과)+4(타과)’ (13과목, 39학점)로 구성된 인문학사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단은 스토리 마스터(Story Master), 스토리 중심 큐레이터, 문화비평가, 스토리·앱 보더 등 도시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넘쳐나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직업군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HK인문한국>

- 주제: 세계적소통코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계 정립(6차·7차)
- 참여교수: 조윤희(참여교수: 사업단장), 박구용(참여교수: 공동연구), 양순자(참여교수: 공동연구)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지원기간: 2013.09-2015.08
- 지원액: 2,329,302,000원
- 사업내용: ‘세계적 소통코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계 정립’ 과제의 목표는 지식과 삶의 소통이라는 맥락에서 한국의 인문학이 한국 사회와 문화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제적 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감성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세계적 소통 코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장기적 비전은 현대 인간의 위기가 인문학의 위기를 낳았다는 진단 아래 인문학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고, 인문학 자체의 쇄신을 위해 감성의 문제를 인문학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 미래적 인간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본 사업단의 구체적 목표는 감성을 통한 인문학의 쇄신, 한국적 감성의 문화 자원화, 감성문화학 관련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시민 대상의 감성문화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이윤의 근대화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인문학을 산업적으로 확산하려는 실용주의적 시도들, 또는 인문학 중심주의를 고수한 채 인문학과 다른 분과학문들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비판하며, 나아가 새로운 인문학의 정립을 시도한다.

□ 2013년도 <시민인문강좌>

- 주제: 빛피 인문학, 마이너리티와 함께 인문공감의 길을 내다 - 인문광산(光山)에서 인문광주(光州)로-
- 참여자: 박구용(참여교수: 연구책임자), 김현(신진연구인력), 류근성(신진연구인력)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광산구청
- 지원기간: 2013.09-2014.08
- 총지원액: 89,496,000원
- 사업내용: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시민 인문학 강좌로 ‘마이너리티와 함께 인문공감의 길을 내다’ 라는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빛피 인문학’ 이라는 이름으로 16개의 강좌를 기획했다. ‘빛피 인문학’ 은 노동자,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에 이르는 마이너리티 계층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공직자, 부녀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참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인문학을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켰다. 또한 강좌의 내용도 인문학의 전반적인 영역을 강좌 참여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인문학 고전, 예술, 철학, 문학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인문적 성찰의 일상화 및 인문공감을 형성할 주체를 ‘사회·문화·정신적 마이너리티 계층 ‘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공존·공생의 인문도시 광주를 일궈낼 주된 동력을 타자적 관점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는 ‘적극적 마이너리티 정신’ 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더 나아가 2013년 ‘인문학,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 라는 <인문주간>의 주제 아래 “마이너리티 인문학, 희망의 길을 놓다” 라는 표제의 인문주간 행사를 5회 실시했다.

□ 2014년도 <인문도시>

- 주제: 인문도시 광산(光山), 빛피 인문학과 함께 세계시민을 향한 물꼬를 트다 - 인문도시 광산에서 인문자치도시 광산으로 -
- 참여자: 박구용(참여교수: 연구책임자), 류근성(신진연구인력), 김현(신진연구인력)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산구청
- 지원기간: 2014.09-2017.08(3년 과제)
- 지원액: 총 288,800,000원 중에서 88,800,000원 지원(1차년도)
- 사업내용: 2013년도 시민 인문학사업의 연장선에서 2014년도 <인문도시> 지원 사업과제로 27개 강좌를 광산학 강좌, 인문학지도자과정, 문화예술인강좌, 광장인문학, 마이너리티인문학, 인문고전학교 6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했다. 본 사업팀은 광산학 강좌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광산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문학 관련 종사자들의 소통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문 담론의 중심점을 형성하고, 광산의 인문자산에 대한 인문적 해석을 통해 인문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자생적 인문학 공부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인문학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총 7일간 진행된 <인문주간>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전

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와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주관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구민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인문주간은 광산구의 과거와 현재라는 거울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비추어 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과거 인물을 재조명하여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현재의 가능성과 그 가치를 확인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 2014년 <광주젠더포럼>

- 주제: 소외계층여성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및 여성 활동가 워크숍
- 참여자: 정미라(참여교수: 책임연구자), 김현(신진연구인력)
- 지원기관: 광주여성단체 교육보육분과, 철학연구센터
- 지원기간: 2014.05-2014.10
- 지원액: 7,000,000원
- 사업내용: 2014년 <광주젠더포럼> 사업은 <인문학강좌> 18회와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인문학강좌>는 탈성매매 여성 및 미혼모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탈성매매 여성들과 미혼모들의 사회·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고취시켜 건강한 자아상과 사회상 형성을 안내하고, 인문학을 매개로 여성들의 계층 간 격차를 극복하여 여성주의적 연대 의식을 형성했다. <워크숍>은 지역사회 여성 활동가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문학 강좌 개설 기관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 및 교육·보육분과회원들과 함께 교육·보육복지 실천방안들을 논의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환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2)우수 실적 향상 계획 및 전략

(1)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논문향상계획

○최근2년간 참여교수1인당연평균 실적은1.6편이다.4-5년차(2016.03-2018.02)에서 1.75편, 6-8년차(2018.03-2020.08)에서 2.0편으로향상시킨다.

(2) 국제저명학술지(SSCI,A&HCI)및기타국제학술지논문향상계획

○최근2년간참여교수1인당연평균 실적은0.1편이다.4-5년차(2016.03-2018.02)에서 0.6편,6-8년차(2018.03-2020.08)에서 0.8편으로향상시킨다.

(3) 국내외 우수저술 향상 계획

○ 최근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연평균 저술 실적은 1.1권이다. 4-5년차(2016.03-2018.02)에서 1.56권, 6-8년차(2018.03-2020.08)에서 2.0권으로 향상시킨다.

(4)우수실적 향상전략

○ 논문실적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여국내외실적지표를개선한다.

국내 학술지 기준

- 1.9편 이하: 100만원
- 2-2.9편: 200만원
- 3편 이상: 300만원

국제학술지기준

-SSCI,A&HCI급국제논문:300만원

-SSCI, A&HCI 급국내발행국제논문:200만원

○국제학술지를중심으로지속적인투고와게재를진작한다.

-A&HCI 급국제학술지

JohnsHopkinsUniversityPress,Diacritics
Springer,Dao:AJournalofComparativePhilosophy
Wiley-Blackwell,PhilosophicalQuarterly
UniversityofHawaiiPress,PhilosophyEastandWest

-SSCI 급국제학술지

SagePublicationsLtd.,Theory,CultureandSociety
UniversityofMinnesotaPress,CulturalCritique
Wiley-Blackwell,InternationalJournalofSocialWelfare

3) 산학협력 향상 계획 및 전략

(1) 산학협력 향상 계획

○ 사업단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교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횡단형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2) 산학협력 실적 향상 전략

☐ 외부 기관과의 연계

○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사업참여기관,산업체등과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사업이원활히이행될수있도록최대한의역량을발휘한다.

○ 사업단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그 관계망을 갖추어 추진한다.

○ 사업단은 특히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시청, 구청, 도청, 교육청, 사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횡단 전문 인력 활용

○ 지역거점대학으로서전남대학교철학과대학원을선도적인학문후속세대양성기관으로발전시켜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양성된 횡단형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획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확대한다.

○ 사업단을관련분야에서최고의경쟁력을갖춘철학전문인력양성대학원으로특성화하여,양성된인력이성공적으로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노력한다.

<제도개선 및 지원 영역>

I 사업단 현황

[첨부 1]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참여교수 현황

산정기간	소속대학 원 학과(부)	성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실적 (건)	교육/분교 /기금	전임/겸임	외국인/ 내국인	참여기간 (YYYYMMDD- YYYYMMDD)	총 참여 개월 수 (A)	환산 참여 교수 수 (A/24)
		한글	영문										
'13.9.1~ '15.8.31	철학과	Kim Su Rasmussen	Kim Su Rasmussen	부교수	남		10	-	전임	외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김상봉	Kim Sang Bong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40708	10	0.4166
'13.9.1~ '15.8.31	철학과	김양현	Kim Yang Hyun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노양진	Noh Yang Jin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박구용	Park Goo Yong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양순자	Yang Soon-ja	조교수	여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원승룡	WON SEUNG YONG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50109- 20150831	8	0.3333
'13.9.1~ '15.8.31	철학과	이종표	Lee Joong Pyo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정미라	Chung Mi La	부교수	여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조운호	CHO YOUNG Ho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13.9.1~ '15.8.31	철학과	최대우	Choi Dae Woo	정교수	남		10	-	전임	내국인	20130901- 20150831	24	1

전체 참여 교수 수(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임	X	X	환산 참여 교수 수(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임	9.7499	X
	겸임	X	X		겸임	-	X
	계	X	X		계	9.75	X

[첨부 2] 산정기간 내 사업단 전체 참여대학원생 현황

산정기간	소속 대학원 학 과(부)	성 명		학번	성별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3년 2학기	철학과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남		이중표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강정민	kangjeongmin		남		정미라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민병재	Byong-jae Min		남		양순자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배수현	BAE SUHYUN		남		Kim Su Rasmussen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안현석	Ahnhyunseok		남		김양현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유성은	Sung-eun Yoo		여		정미라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이영수	lee young soo		남		조운호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전하나	JEON HANA		여		박구용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홍찬호	Hong chan-ho		남		정미라	석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김태준	Kim Tae Jun		남		박구용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박의연	Park Ey Yeon		여		김양현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백송이	BAEK SONGYI		여		정미라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손홍국	Son, Honggook		남		김상봉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우동필	woo dong pil		남		이중표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위민호	Wie Minho		남		박구용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이무영	Lee Mu Young		남		김상봉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정다영	Jung, dayoung		여		김상봉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정화영	JungHwaYeong		여		노양진	박사
2013년 2학기	철학과	조배균	CHO BAE GYUN		남		조운호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김들	Kim Deul		여		박구용	석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김서라	KIM SEORA		여		박구용	석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김혜영	KIM HYEYOUNG		여		노양진	석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민병재	Byong-jae Min		남		양순자	석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안현석	Ahnhyunseok		남		김양현	석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전하나	JEON HANA		여		박구용	석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홍찬호	Hong chan-ho		남		정미라	석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김용은	KIM YONG-EUN		남		노양진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김태준	Kim Tae Jun		남		박구용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박의연	Park Ey Yeon		여		김양현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백송이	BAEK SONGYI		여		정미라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손홍국	Son, Honggook		남		김양현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우동필	woo dong pil		남		이중표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위민호	Wie Minho		남		박구용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이무영	Lee Mu Young		남		김양현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임명규	Lim Myung Gyu		남		박구용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정다영	Jung, dayoung			여		김상봉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정상엽	JEONG SANGYEOP			남		최대우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정소라	Jeong So-ra			여		노양진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정화영	JunghwaYeong			여		노양진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조배균				남		조운호	박사
2014년 1학기	철학과	추교준	Choo Kyojun			남		김양현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김들	Kim Deul			여		박구용	석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김서라	KIM SEORA			여		박구용	석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김혜영	KIM HYEYOUNG			여		노양진	석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전하나	JEON HANA			여		박구용	석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홍찬호	Hong chan-ho			남		정미라	석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김성부	Kim Sung-Boo			남		이중표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김용은	KIM YONG-EUN			남		노양진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김태준	Kim Tae Jun			남		박구용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박의연	Park Ey Yeon			여		김양현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백송이	BAEK SONGYI			여		정미라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손홍국	Son, Honggook			남		김양현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우동필	woo dong pil			남		이중표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위민호	Wie Minho			남		박구용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이무영	Lee Mu Young			남		김양현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임명규	Lim Myung Gyu				남				박구용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정상엽	JEONG SANGYEOP				남				최대우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정소라	Jeong So-ra				여				노양진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정화영	JungHwaYeong				여				노양진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조배균	CHO BAE GYUN				남				조운호	박사
2014년 2학기	철학과	추교준	Choo Kyojun				남				김양현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김들	Kim Deul				여				박구용	석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김서라	KIM SEORA				여				박구용	석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김진영	JIN-YOUNG KIM				여				원승룡	석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김혜영	KIM HYEYOUNG				여				노양진	석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민병재	Byong-jae Min				남				원승룡	석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박제성	Park Je Seong				남				박구용	석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전하나	JEON HANA				여				박구용	석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김성부	Kim Sung-Boo				남				이중표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김용은	KIM YONG-EUN				남				노양진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김태준	Kim Tae Jun				남				박구용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박의연	Park Ey Yeon				여				김양현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백송이	BAEK SONGYI				여				정미라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손성진	son seong jin				여				원승룡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우동필	woo dong pil				남				이중표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위민호	Wie Minho		남		박구용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이무영	Lee Mu Young		남		김양현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임명규	Lim Myung Gyu		남		박구용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정상염	JEONG SANGYEOP		남		최대우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정소라	Jeong So-ra		여		노양진	박사
2015년 1학기	철학과	정화영	JungHwaYeong		여		노양진	박사
참여대학원생 수(명)				석사			X	14명
				박사			X	27명
				계			X	41명

II 부문별

<교육역량 영역>

[첨부 3] 최근 2년간 대학원생 확보 실적(연도별/학기별 재학생 현황)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명		학번	성별	외국인/내국인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3년	10월1일	1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남	외국인		이종표	석사
2013년	10월1일	2	강정민	KANG JEONGMIN		남	내국인		정미라	석사
2013년	10월1일	3	김용재	KIM YONG JAE		남	내국인		김양현	석사
2013년	10월1일	4	김은주	KIM EUNJU		여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3년	10월1일	5	민병재	MIN BYONG JAE		남	내국인		원승룡	석사
2013년	10월1일	6	박정환	PARK JUNG HWAN		남	내국인		이종표	석사
2013년	10월1일	7	배수현	BAE SUHYUN		남	내국인		Kim Su Rasmussen	석사
2013년	10월1일	8	안현석	AHN HYUN SEOK		남	내국인		김양현	석사
2013년	10월1일	9	유미경	YOU MI		여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3년	10월1일	9	유미경	KYOUNG			여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3년	10월1일	10	유성은	YOO SUNG EUN			여	내국인		정미라	석사
2013년	10월1일	11	이영수	LEE YOUNG SOO			남	내국인		조운호	석사
2013년	10월1일	12	진하나	JEON HANA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3년	10월1일	13	정현주	CHUNG HYUNJOO			여	내국인		이종표	석사
2013년	10월1일	14	홍찬호	HONG CHAN HO			남	내국인		정미라	석사
2013년	10월1일	15	황재은	Hwang jea eun			여	내국인			석사
2013년	10월1일	16	김성수	KIM SUNG SU			남	내국인		최태우	박사
2013년	10월1일	17	김영봉	KIM YOUNG BONG			남	내국인		이종표	박사
2013년	10월1일	18	김태준	KIM TAE JUN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3년	10월1일	19	박의연	PARK EY YEON			여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3년	10월1일	20	백송이	BAEK SONGYI			여	내국인		정미라	박사
2013년	10월1일	21	손홍국	SON HONGGOOK			남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3년	10월1일	22	안승훈	AN SEUNGHUN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3년	10월1일	23	오창환	OH CHANG HWAN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3년	10월1일	24	우동필	WOO DONGPIL			남	내국인		이종표	박사
2013년	10월1일	25	위민호	WIE MINHO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3년	10월1일	26	이무영	LEE MU YOUNG			남	내국인			박사

2013년	10월1일	27	정다영	JUNG DA YOUNG			여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3년	10월1일	28	정화영	JUNG HWAYEONG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3년	10월1일	29	조배균	CHO BAE GYUN			남	내국인		조윤희	박사
2013년	10월1일	30	주선희	Joo Seon Hee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3년	10월1일	31	주형이	JOO MUJIN			여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3년	10월1일	32	추교준	CHOO KYOJUN			남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3년	10월1일	33	황광우	HWANG KWANG WOO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3년	10월1일	34	하정호	HA JEONGHO			남	내국인			석박사통합
2014년	4월1일	35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남	외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4월1일	36	강동주	KANG DONG JU			남	내국인			석사
2014년	4월1일	37	김대훈	KIM DAE-HUN			남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4년	4월1일	38	김들	KIM DEUL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4년	4월1일	39	김서라	KIM SEORA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4년	4월1일	40	김용재	KIM YONG JAE			남	내국인		김양현	석사
2014년	4월1일	41	김혜영	KIM HYEYOUNG			여	내국인		노양진	석사
2014년	4월1일	42	민병재	MIN BYONG JAE			남	내국인		원승룡	석사
2014년	4월1일	43	박정환	PARK JUNG HWAN			남	내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4월1일	44	안현석	AHN HYUN SEOK			남	내국인		김양현	석사
2014년	4월1일	45	유미경	YOU MI KYOUNG			여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4년	4월1일	46	이상훈	LEE SANG HOON			남	내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4월1일	47	장근영	JANG GEUN-YOUNG			여	내국인			석사
2014년	4월1일	48	전하나	JEON HANA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4년	4월1일	49	정현주	CHUNG HYUNJOO			여	내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4월1일	50	홍찬호	HONG CHAN HO			남	내국인		정미라	석사
2014년	4월1일	51	김영복	KIM YOUNG BONG			남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4년	4월1일	52	김용은	KIM YONG-EUN			남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4년	4월1일	53	김은주	KIM EUN-JU			여	내국인		이강서	박사
2014년	4월1일	54	김태준	KIM TAE JUN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4년	4월1일	55	김회경	KIM HOI KYUNG			남	내국인		조윤호	박사
2014년	4월1일	56	박명섭	PARK MYUNG SUP			남	내국인		조윤호	박사
2014년	4월1일	57	박의연	PARK EY YEON			여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4년	4월1일	58	백송이	BAEK SONGYI			여	내국인		정미라	박사
2014년	4월1일	59	손홍국	SON HONGGOOK			남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4년	4월1일	60	안승훈	AN SEUNGHUN			남	내국인		김상복	박사
2014년	4월1일	61	오창환	OH CHANG			남	내국인		김상복	박사

2014년	4월1일	61	오창환	HWAN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4년	4월1일	62	우동필	WOO DONGPIL			남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4년	4월1일	63	위민호	WIE MINHO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4년	4월1일	64	이무영	LEE MU YOUNG			남	내국인			박사
2014년	4월1일	65	임명규	LIM MYUNG GYU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4년	4월1일	66	정다영	JUNG DA YOUNG			여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4년	4월1일	67	정상엽	JEONG SANGYEOP			남	내국인		최태우	박사
2014년	4월1일	68	정소라	JEONG SO-RA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4년	4월1일	69	정화영	JUNG HWA YEONG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4년	4월1일	70	조배균	CHO BAE GYUN			남	내국인		조윤호	박사
2014년	4월1일	71	주선희	Joo Seon Hee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4년	4월1일	72	주형이	JOO MUJIN			여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4년	4월1일	73	추교준	CHOO KYOJUN			남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4년	4월1일	74	김귀옥	KIM KWIE OK			여	내국인			석박사통합
2014년	4월1일	75	하정호	HA JEONGHO			남	내국인			석박사통합
2014년	10월1일	76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REV BARAWAKUMBUKE WIMALATHISSA THERO			남	외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10월1일	77	강동주	KANG DONG JU			남	내국인			석사

2014년	10월1일	78	김대훈	KIM DAE-HUN				남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4년	10월1일	79	김들	KIM DEUL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4년	10월1일	80	김서라	KIM SEORA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4년	10월1일	81	김용재	KIM YONG JAE				남	내국인				김양현	석사
2014년	10월1일	82	김혜영	KIM HYEYOUNG				여	내국인				노양진	석사
2014년	10월1일	83	민병재	MIN BYONG JAE				남	내국인				원승룡	석사
2014년	10월1일	84	박정환	PARK JUNG HWAN				남	내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10월1일	85	안현석	AHN HYUN SEOK				남	내국인				김양현	석사
2014년	10월1일	86	유미경	YOU MI KYOUNG				여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4년	10월1일	87	이상훈	LEE SANG HOON				남	내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10월1일	88	장근영	JANG GEUN-YOUNG				여	내국인					석사
2014년	10월1일	89	전하나	JEON HANA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4년	10월1일	90	정현주	CHUNG HYUNJOO				여	내국인				이중표	석사
2014년	10월1일	91	홍찬호	HONG CHAN HO				남	내국인				정미라	석사
2014년	10월1일	92	김성부	kim sungboo				남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4년	10월1일	93	김영봉	KIM YOUNG BONG				남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4년	10월1일	94	김용은	KIM YONG-EUN				남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4년	10월1일	95	김은주	KIM EUN-JU				여	내국인				이강서	박사

2014년	10월1일	96	김태준	KIM TAE JUN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4년	10월1일	97	김회경	KIM HOI KYUNG		남	내국인		조운호	박사
2014년	10월1일	98	남궁협	Nangung Hyuph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4년	10월1일	99	박명섭	PARK MYUNG SUP		남	내국인		조운호	박사
2014년	10월1일	100	박의연	PARK EY YEON		여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4년	10월1일	101	손홍국	SON HONGOOK		남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4년	10월1일	102	안승훈	AN SEUNGHUN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4년	10월1일	103	오창환	OH CHANG HWAN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4년	10월1일	104	우동필	WOO DONGPIL		남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4년	10월1일	105	위민호	WIE MINHO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4년	10월1일	106	이무영	LEE MU YOUNG		남	내국인			박사
2014년	10월1일	107	이선이	LEE, SUNI		여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4년	10월1일	108	임명규	LIM MYUNG GYU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4년	10월1일	109	정상엽	JEONG SANGYEOP		남	내국인		최태우	박사
2014년	10월1일	110	정소라	JEONG SO-RA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4년	10월1일	111	조배균	CHO BAE GYUN		남	내국인		조운호	박사
2014년	10월1일	112	조아나	Cho Ahna		여	내국인			박사
2014년	10월1일	113	주형이	JOO MUJIN		여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4년	10월1일	114	추교준	CHOO KYOJUN			남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4년	10월1일	115	탁양현	Taak Yaang-Hyeun			남	내국인		양순자	박사
2014년	10월1일	116	김귀옥	KIM KWIE OK			여	내국인			석박사통합
2015년	4월1일	117	MCGIBBON JOSEPH BARD	MCGIBBON JOSEPH BARD			남	외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18	고원후	Go wonhoo			여	내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19	김대훈	KIM DAE-HUN			남	내국인		이강서	석사
2015년	4월1일	120	김동혁	kim donghyeok			남	내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21	김들	KIM DEUL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5년	4월1일	122	김서라	KIM SEORA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5년	4월1일	123	김성우	kim seongwoo			남	내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24	김진영	KIM JIN YOUNG			여	내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25	김혜영	KIM HYEYOUNG			여	내국인		노양진	석사
2015년	4월1일	126	민병재	MIN BYONG JAE			남	내국인		원승룡	석사
2015년	4월1일	127	박제성	Park Je Seong			남	내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28	박찬신	Park chansun			남	내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29	이상훈	LEE SANG HOON			남	내국인		이중표	석사
2015년	4월1일	130	장근영	JANG GEUN-YOUNG			여	내국인			석사
2015년	4월1일	131	전하나	JEON HANA			여	내국인		박구용	석사

2015년	4월1일	132	김성부	kim sungboo		남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5년	4월1일	133	김용은	KIM YONG-EUN		남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5년	4월1일	134	김은주	KIM EUN-JU		여	내국인		이강서	박사
2015년	4월1일	135	김태준	KIM TAE JUN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5년	4월1일	136	김회경	KIM HOI KYUNG		남	내국인		조운호	박사
2015년	4월1일	137	남궁협	Namgung Hyuph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5년	4월1일	138	박명섭	PARK MYUNG SUP		남	내국인		조운호	박사
2015년	4월1일	139	박의연	PARK EY YEON		여	내국인		김양현	박사
2015년	4월1일	140	백송이	BAEK SONGYI		여	내국인		정미라	박사
2015년	4월1일	141	손성진	Son Seong-jin		여	내국인		원승룡	박사
2015년	4월1일	142	안승훈	AN SEUNGHUN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5년	4월1일	143	오창환	OH CHANG HWAN		남	내국인		김상봉	박사
2015년	4월1일	144	우동필	WOO DONGPIL		남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5년	4월1일	145	위민호	WIE MINHO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5년	4월1일	146	이무영	LEE MU YOUNG		남	내국인			박사
2015년	4월1일	147	이선이	LEE, SUNI		여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5년	4월1일	148	임명규	LIM MYUNG GYU		남	내국인		박구용	박사
2015년	4월1일	149	정상엽	JEONG SANGYEOP		남	내국인		최대우	박사

2015년	4월1일	150	정소라	JEONG SO-RA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5년	4월1일	151	정현주	chung hyunjoo		여	내국인				박사
2015년	4월1일	152	정화영	JUNG HWAYEONG		여	내국인			노양진	박사
2015년	4월1일	153	조아나	Cho Ahna		여	내국인				박사
2015년	4월1일	154	주형이	JOO MUJIN		여	내국인			이중표	박사
2015년	4월1일	155	김귀옥	KIM KWIE OK		여	내국인				석박사통합
대학원생 수(명)		석사	2013년	15명	석박사통합	2013년	1명	외국인 학생 수	2013년	0.5명	
			2014년	32명		2014년	3명			X	
			2015년	15명		2015년	1명		2014년	1명	
			전체	62명		전체	5명			X	
		박사	2013년	18명	2013년	17명	2015년		0.5명		
			2014년	47명	2014년	41명			X		
			2015년	23명	2015년	19.5명	전체		2명		
			전체	88명	전체	77.5명			X		

[첨부 4] 최근 2년간 대학원생 배출 실적 (졸업 및 취업 실적)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성별	생년월일	취득학위	입학년월 (YYYYMM)	취업정보					
			한글	영문						구분	취업일자 (YYYYMMDD)	회사명	전화번호	취업구분	근무 지역
2014년	8월	1	류도향	Ryoo Do Hayang		여		박사		취업	20140901	전남대학교	625303220	비정규직	광주광역시
2014년	8월	2	최행준	CHOI HANG JOON		남		박사		취업	20140901	전남대학교	625303220	비정규직	광주광역시
2014년	8월	3	김성부	KIM SUNG-BOO		남		석사		국내진학	-	-	-	-	-
2014년	8월	4	김진이	Kim Jin He		여		석사		기타	-	-	-	-	-
2014년	8월	5	이상도	LEE sang do		남		석사		기타	-	-	-	-	-
2015년	2월	6	남미순	Nam Mi Soon		여		석사		취업	20150301	전대사대부중	5303817	정규직	광주광역시
2015년	2월	7	이회진	Lee Hoei Jin		남		박사		취업	20150301	전남대학교	625303220	비정규직	광주광역시
2015년	2월	8	전경진	jeon kyung jin		남		박사		취업	20150901	전남대학교	625303220	정규직	광주광역시
2015년	2월	9	김용재	KIM YONG JAE		남		석사		국내진학	-	-	-	-	-
2015년	2월	10	정현주	CHUNG HYUNJOO		여		석사		국내진학	-	-	-	-	-
2015년	2월	11	유성은	YOO SUNG EUN		여		석사		기타	-	-	-	-	-
졸업생	2014년		석사		3명	2015년		석사		4명	전체기간		석사	7명	

[첨부 5-1]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저자			저자 중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가중 치(P)	환산 편수
			게재학술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MM 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수 (n)	총 저 자수 (T)	주저자 성명	수(A)	기타저자 성명	수(B)	총 저 자수		
2014 년	1	심중유식설로 보는 법장의 포월논리	불교학연구	1598- 0642	38	-	257-2 93	20140 3	1명	명	1명	조배 균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2	세계적 문배정의의 문제: 문배정의를 통 한 빈곤문제 해결의 가능성	범한철학회	1225- 1410	73	여름	161-1 88	20140 6	1명	명	1명	박의 연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3	카시러의 상징형식에 대한 체험주의적 해명 ? ? MN 9경 ? ? 과 ? ? 중아함 29경 ? ? 에 나타난 무명과 누의 해석 문제	범한철학	1225- 1410	73	여름	107-1 32	20140 6	1명	명	1명	정화 영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4	?? 화엄오교장? ? ? 심지차별? 논의에 대하여	선문화연구	1575- 857X	16	-	173-2 16	20140 7	1명	명	1명	우동 필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5	테카르트의 ? ? 음악 개론 ? ?에서 협화음 의 예술철학적 문제	동아시아불교 문화	1976- 0604	19	-	367-3 99	20140 9	1명	명	1명	조배 균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6	아우구스티누스와 테 카르트의 리듬이론 비 교 ? 동등성 (aequalitas) 개념을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1226- 8569	45	10월	91-11 2	20141 0	1명	명	1명	손홍 국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7		음악논단	1738- 1452	32	5호	163-1 96	20141 0	1명	명	1명	추교 준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8	데카르트에서 자아와 신 문제	칸트연구	1598- 9372	-	34	39-76	20141 2	1명	명	1명	이무 영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9	십이언기 전개설 비 판	한국불교학	1225- 0945	72	-	153-1 84	20141 2	1명	명	1명	우동 필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10	십이언기에서 식과 명색의 상호관계:사식 설(四食說)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 문화	1976- 0604	20	-	311-3 39	20141 2	1명	명	1명	김성 부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11	정약용의 사려(思慮) 증심의 미발(未發)이 해	범한철학	1225- 1410	75	겨울	53-80	20141 2	1명	명	1명	정상 영	1명	-	0명	1명	1	1
2014 년	12	크루지우스의 불프 충분근거율 비판	철학연구	1229- 022X	107	겨울	111-1 40	20141 2	1명	명	1명	손홍 국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3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에서 신의 관념	철학탐구	1598- 7213	37	2월	131-1 64	20150 2	1명	명	1명	손홍 국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4	아렌트의 정치판단이 론의 실용주의적 해석	범한철학	1225- 1410	76	봄	163-1 83	20150 3	1명	명	1명	정소 라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5	연기설의 축(觸)과 두이의 경험: 닫힌 이 분법을 넘어 열린 세 계로	동아시아불교 문화	19760 604	21	-	343-3 64	20150 3	1명	명	1명	김성 부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6	퍼트남과 사실/가치 이분법	범한철학	1225- 1410	76	봄	91-11 2	20150 3	1명	명	1명	김용 은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7	음악학자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음악 개론>에 대한 서지 학적 연구	용봉인문논총	1226- 8569	46	-	131-1 58	20150 4	1명	명	1명	이무 영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8	데카르트 철학에서 미적 판단의 문제	칸트연구	1598- 9372	-	35	93-12 8	20150 6	1명	명	1명	추교 준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9	공공미술품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지평 재구성 : 하버마스의 의사소	공공사회연구	2233- 663X	5	3	2015- 05-28	20150 8	1명	명	1명	김태 준	1명	-	0명	1명	1	1

2015 년	19	통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233-663X	5	3	2015-05-28	201508	1명	명	1명	김태준	1명	-	0명	1명	1	
2015 년	20	다원주의와 의사소통 : 하버마스에서 듀이로	철학연구	1226-9727	135	-	373-393	201508	1명	명	1명	정소라	1명	-	0명	1명	1	
2015 년	21	로젠크란츠의 ‘캐리커처’와 헤겔의 ‘잡된 회극’ 비교를 통한 ‘아름다운 추’해명	인문학연구	1598-9259	-	50	283-308	201508	1명	명	1명	임명규	1명	-	0명	1명	1	
논문 총 환산편수			2013년			-			2014년			12	2015년			9	총계	21

[첨부 5-2]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가중 치(P)	환산 편수	검토 필
				게재 학술 지명	학술 지 구 분	e-IS SN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성명	주저자 수 (A)	기타저자 성명			
			국제저명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총계			-	X	X	
										기타국제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3년	-		2014년	-	총계			-	총계

[첨부 5-3]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T)	저자 중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국어/외국어 가중치(P)	신간/개정		환산편 수 (A*P*S/T)
				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YMM)		성명	수(A)		구분	가중치 (S)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3년		-	2014년	2014년	-	2015년	2015년	-	총계		총계		-	X
	외국어 저서	2013년		-	2014년	2014년	-	2015년	2015년	-	총계		총계		-	

[첨부 6]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

구분	연번	학술대회명	개최국가	개최일 (YYYYMMDD)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총저자수 (T)	저자 중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전문/초록	가중치 (P)	환산 편수 (P/T)* (A)
								성명	수(A)			
구두발표	2014년	국제	1	동아시아 주자학과 울국학의 위상	대한민국	20141031	올국학회	정약용의 사례 중심의 미발 해석	1명	전문	2	2
구두발표	2014년	국내	2	공동체, 미래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한민국	20140620	법한철학회	‘이성 없는 철학’과 다원성의 제약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3	공동체, 미래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한민국	20140620	법한철학회	공공미술품의 공공성과 자율성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4	공동체, 미래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한민국	20140620	법한철학회	노동과 ‘복종하는 주체’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5	공동체, 미래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한민국	20140620	법한철학회	데카르트 철학에서 미적 판단의 문제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6	공동체, 미래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한민국	20140620	법한철학회	배제 논변과 체험주의적 은유 이론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7	공동체, 미래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한민국	20140620	법한철학회	시민사회와 청소년자실문제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8	공동체, 미래 사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한민국	20140620	법한철학회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 ? ? MN 9경 ? ? 과 ? ?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9	제8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	대한민국	20140929	선리연구원	중아함 29경 ? ? 에 나타난 무명과 누의 해석 문제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4년	국내	10	불교와 세계종교의 신비사상과의 대화	대한민국	20141107	(사)한국불교학회	십이연기 전개설 비판	1명	전문	1	1
구두발표	2015년	국내	11	불교의 인식론과 현실	대한민국	20150516	불교학연구회	여관의 십이연기	1명	전문	1	1

2013년	국제	총 건수	0건	2014년	국제	총 건수	1건
		총 환산 편수	-			총 환산 편수	2
	국내	총 건수	0건		국내	총 건수	9건
		총 환산 편수	-			총 환산 편수	9
	계	총 건수	0건		계	총 건수	10건
		총 환산 편수	-			총 환산 편수	11
2015년	국제	총 건수	0건	전체기간	국제	총 건수	1건
		총 환산 편수	-			총 환산 편수	2
	국내	총 건수	1건		국내	총 건수	10건
		총 환산 편수	1			총 환산 편수	10
	계	총 건수	1건		계	총 건수	11건
		총 환산 편수	1			총 환산 편수	12

[첨부 7]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신진연구인력 현황

산정기간	소속대학원학과(부)	성 명		성별	연구자등록 번호	연구실적(건)	참여기간(YYYYMMDD-YYYYMMDD)	총 참여 개 월 수 (B)	환산 참여 신진연구인 력 수 (B/24)
		한글	영문						
'13.9.1 ~ '15.8.31	철학과	김현	Ryu Keun-Seoun g	여	10162515	6	20130901~20150831	24	1
'13.9.1 ~ '15.8.31	철학과	류근성	kim Hyun	남	10033953	4.5	20130901~20150831	24	1
'13.9.1 ~ '15.8.31	철학과	이향준	Lee HyangJoon	남	10027902	8	20130901~20150831	24	1
전체 신진연구인력 수						3	환산 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3

[첨부 8-1]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개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가중 치(P)	환산 편수	
			게재학술지 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저 자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 (A)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 (B)			
2013 년	1	교환과정의 논리적 구조	철학논총	1226- 9379	74	4	179	20131 0	1명	0명	1명	김현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2	서, 반서, 그리고 거울 뉴런	동양철학	1598- 6780	40	-	145	20131 2	1명	0명	1명	이향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3	호남학: 어느 철학 자의 비전과 그 후 50년	호남문화연 구	1225- 3561	54	-	75	20131 2	1명	0명	1명	이향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4	맹자 인간학의 실 용주의적 독해	동양철학연 구	1229- 5965	77	-	199	20140 2	1명	0명	1명	류근 성	1003 3953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5	삶으로서의 인문 학, 권리로써 인문 학	한국여성철 학	1975- 0013	21	-	5	20140 5	1명	0명	1명	김현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6	공중누각의 기상론 : 소옹의 모호한 기 상	울국사상연 구	1738- 8236	28	-	235	20140 6	2명	0명	2명	이향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7	역학적 사유의 살 아있는 기원	동양철학	1598- 6780	41	-	1	20140 7	1명	0명	1명	이향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8	폭력 그리고 진리 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1598- 2114	14	2	5	20140 8	1명	0명	1명	김현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9	환상의 횡단으로부 터 레닌의 반복으로	범한철학	1225- 1410	74	3	381	20140 9	1명	0명	1명	김현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0	공자와 듀이의 인 간관	공자학	1738 -2629	27	-	47	2014 11	1명	0명	1명	류근 성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1	리, 사물, 사건	율곡사상연 구	1738 -8236	29	-	19	2014 12	1명	0명	1명	이항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2	미발심체: 마지막 어휘, 혹은 정신적 경련	유학연구	1229 -5035	31	-	277	2014 12	1명	0명	1명	이항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13	선진 유가 인간론 의 자연주의적 성격	공자학	1738 -2629	28	-	37	2015 05	1명	0명	1명	류근 성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14	이항로-역사의 비 탈길에 선 성리학자 의 기획	공자학	1738 -2629	28	-	183	2015 05	1명	0명	1명	이항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15	맑스(K.Marx) 자연 개념의 생태주의적 함의-셀링 (F.J.W.Schelling) 의 유기체적 자연관 과의 관련성을 중심 으로	범한철학	1225 -1410	77	2	209	2015 06	1명	0명	1명	김현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16	도 개념의 인지적 주석, 그리고 그 너 머	동양철학	1598 -6780	43	-	113	2015 07	1명	0명	1명	이항 준	1002 7902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17	관계 중심적 유가 윤리와 개인	철학논집	1738 -8104	42	-	365	2015 08	1명	0명	1명	류근 성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18	코핀 혹은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1598 -2114	15	2	75	2015 08	1명	0명	1명	김현	1016 2515	1명	-	-	0명	1명	1	1
논문 총 환산편수													8.5	2015년		6	총계			17.5

[첨부 8-2]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가 중치 (P)	환 산 편수 (P/T))*A	검 토 필				
				게재 학술 지명	학술 지 구분	e-IS SN	ISSN	권	호	쪽	연월 (YYY YMM)	주 저자 수 (m)	기 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성 명	연 구자 등록 번호	성 명	연 구자 등록 번호	수 (B)	기타저자	주저자	성 명				연 구자 등록 번호	수 (A)	성 명	연 구자 등록 번호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총계						-	X	X
				기타국제학술지	2013년				-	2014년		-	2015년			-	총계			-	총계						-		

[첨부 8-3]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수(T)	저자 중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국어/외국어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 T)
				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YMM)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A)		구분	가중치 (S)	
2014년	국어저서	1	철학의이해	철학과 현실사	978-89-7775-775-2	?	?	0282-01-01	201402	9명	김현, 류근성, 이향준	10162515,10033953,10027902	3	2	신간	1	0.6666
2014년	국어저서	2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	전남대학교출판부	978-89-6849-176-4	?	?	0525-01-01	201501	6명	류근성,이향준	10033953,10027902	2	2	신간	1	0.6666
총 환산편수	국어저서	2013년		-	2014년	2014년	1.3332	2015년		-	총계			1.3332	X	X	X
	외국어저서	2013년		-	2014년	2014년	-	2015년		-	총계			-			

[첨부 9] 최근 2년간 외국인 교수 비율

기준	연번	성 명		직급	성별	연구자등록번호	외국인/내국인	국적	비고
		한글	영문						
2013년 2학기	1	Kim Su Rasmussen	Kim Su Rasmussen	조교수	남	11003520	외국인	덴마크	-
2014년 1학기	2	Kim Su Rasmussen	Kim Su Rasmussen	부교수	남	11003520	외국인	덴마크	-
2014년 2학기	3	Kim Su Rasmussen	Kim Su Rasmussen	부교수	남	11003520	외국인	덴마크	-
2015년 1학기	4	Kim Su Rasmussen	Kim Su Rasmussen	부교수	남	11003520	외국인	덴마크	-
총 교수 수	2013년	1명	외국인 교수 수		2013년	1명	외국인 교수 비율		100%
	2014년	2명			2014년	2명			100%
	2015년	1명			2015년	1명			100%

<연구역량 영역>

[첨부 10-1]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번	주관 부처	사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성 명	연구 자등록 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연 구비(천원)	사업 참여교 수지분 액(천 원)	사업 참여교 수지분 액(천 원)	연구비 입금일(YYYYMMDD)	사업 참여교 수지 분액 중 입 금액(천원)
								시작 일	종료 일						
'13.9 .1~'14 .8.31	1	한국 연구재단	인문 한국지 원사업	(6차)세계적 소통 코 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 계 정립	조완 호	조완 호	?	20130 901	20140 831	공동	1,000 ,000	71,40 0	7.14%	20130910	70,00 0
'14.9 .1~'15 .8.31	2	한국 연구재단 (교육부)	인문 한국지 원사업	(7차)세계적 소통 코 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 계 정립	조완 호	양순 자	?	20140 901	20150 831	공동	1,000 ,000	58,80 0	5.88%	20140930	50,00 0
'14.9 .1~'15 .8.31	3	한국 연구재단 (교육부)	인문 한국지 원사업	(7차)세계적 소통 코 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 계 정립	조완 호	조완 호	?	20140 901	20150 831	공동	1,000 ,000	58,80 0	5.88%	20140930	50,00 0
'14.9 .1~'15 .8.31	4	한국 연구재단 (교육부)	인문 한국지 원사업	(7차)세계적 소통 코 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 계 정립	조완 호	박구 용	?	20140 901	20150 831	공동	1,000 ,000	58,80 0	5.88%	20140930	50,00 0
'14.9	5	한국	인문	인문도시 광산(光山),	박구	박구	?	20140	20150	단독	131,8	118,6	90%	20141006	88,80

1~'15 .8.31	5	연구제 단	도시지 원사업	빛피인문학과 함께 세 계시민을 향한 물꼬를 트다 - 인문도시 확산 에서 인문자치도시 광 산으로 -	용	?	901	831	단독	00	90%	20	20141006	0	
'14.9 .1~'15 .8.31	6	한국 연구제 단(교 육부)	인문 도시지 원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특 별포럼 개최	박구 용	?	20150 727	20151 119	단독	25,00 0	90%	22,50 0	20141006	20,00 0	
총 수주 건수						1건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3.9.1~'14.8.31		70,00 0			
						5건								258,8 00	
						6건									
계		계													

[첨부 10-2]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번	산업체 명	산업체 구분	지역구 분	연구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 구비(천 원)	사업 참여교수 지분 (%)	사업 참여교수 지분 액(천원)	연구비 입금일 (YYYYMM DD)	사업 참여교수 지분 액 중 입금액(천원)						
총 수주 건수					'13.9.1 ~ '14.8.31	0건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13.9.1 ~ '14.8.31			-						
															시작일		종료일		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4.9.1 ~ '15.8.31	-
																					계

[첨부 10-3]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번	해외 기관명	국가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 구비 (천원)	사업 참여 수 지 분 (%)	사업 참여 수 지 분액 (천원)	연구 비 입 금일 (YYYYMMDD)	사업 참여 수 지 분액 (천원)	환산 입금액 (천원)	해외 재원 (단위)
								시작 일	종료 일									
총 수주 건수			'13.9.1~'14.8.31		0건	해외기관 연구비 총 입금액		'13.9.1~'14.8.31			연구 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13.9.1~'14.8.31			-
								'14.9.1~'15.8.31										
								계										

[첨부 11-1] 최근 2년간 참여교수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개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 치(P)	환산 편수	
			게재학술지 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저 자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 (A)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 (B)			
2013 년	1	東醫壽世保元 해석 의 몇 가지 문제들	사상체질의 학회지	1226- 4075	25	3	135- 144	20130 9	1명	0명	1명	-	-	0명	최대 우	10020 687	1명	0명	1명	1
2013 년	2	四象醫學의 未來	범한철학	1225- 1410	70	3	31-5 4	20130 9	1명	0명	1명	-	-	0명	최대 우	10020 687	1명	0명	1명	1
2013 년	3	자율 예술과 복제 예술의 변증술	사회와 철학	1738- 6519	26	1	281- 316	20131 0	1명	0명	1명	-	-	0명	박구 용	10029 883	1명	0명	1명	1
2013 년	4	덕과 윤리	범한철학	1225- 1410	71	4	215- 236	20131 2	1명	0명	1명	-	-	0명	노양 진	10047 941	1명	0명	1명	1
2013 년	5	불교철학에서 내재 와 초월(비교철학적 고찰)	동서철학연 구	1225- 1968	70	1	211- 236	20131 2	1명	0명	1명	-	-	0명	조운 호	10025 546	1명	0명	1명	1
2013 년	6	역학계몽요해(易學 啓蒙要解)의 도서역 학적 의의	동양철학	1598- 6780	40	1	29-5 7	20131 2	1명	0명	1명	-	-	0명	양순 자	10685 179	1명	0명	1명	1
2013 년	7	정신의 발전과 자 유의 실현: 헤겔철학 에 나타난 정신개념	헤겔연구	1598- 9410	34	1	133- 153	20131 2	1명	0명	1명	-	-	0명	정미 라	10027 303	1명	0명	1명	1

2013 년	7	을 중심으로	헤켈연구	1598-9410	34	1	133-153	201312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3 년	8	행복의 그림자:자유와 폭력의 경계에 서	동서철학연구	1225-1968	70	1	5쪽-33	201312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9	고익진의 초기불교 해석	한국불교학	1225-0945	69	1	35-69	201402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0	정치적 행위와 자유: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 판적 소고	철학논총	1226-9379	76	2	611-628	201404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1	?荀子?의 ‘義’의 윤리학적 함의 一分, 節, 循理의 관점에 서	孔子學(공자학)	1738-2629	26	1	47-82	201405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2	역사교육을 향한 철학적 제언	역사비평	1227-3627-42	107	1	105-124	201405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3	The Globalization of Cliches and the Search for Pure Language	인문과학연구	2005-1263	41	1	509-527	201406	2명	0명	2명	-	-	0명	1명	1	0.5
2014 년	14	몸의 침묵	범한철학	1225-1410	73	2	213-232	201406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5	파국과 개벽 사이에서 - 20세기 한국 철학의 좌표계	대동철학	1229-0750	67	1	1쪽-53	201406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6	헤겔의 신체 중심 적 인간 이해	동아시아불교문화	1976-0604	18	1	241-272	201406	1명	0명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6	해원의 신체 중심 적 인간 이해	동아시아불 교문화	1976 -0604	18	1	241- 272	2014 06	1명	0명	1명	조운 호	546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7	사상 체질 분류의 이론적 근거	범한철학	1225 -1410	74	3	81-1 04	2014 09	1명	0명	1명	최대 우	10020 687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8	사회의 시선	사회와 철학	1738 -6519	28	1	1쪽 -18	2014 10	1명	0명	1명	박구 용	10029 883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19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 자기보존 욕 망과 이성	철학논총	1226 -9379	78	4	535- 552	2014 10	1명	0명	1명	정미 라	10027 303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0	악의 사회 비판	가톨릭철학	1229 -2915	23	1	51-8 5	2014 10	1명	0명	1명	박구 용	10029 883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1	칸트철학의 생태철 학적 비판과 반비판	사회와 철학	1738 -6519	28	1	131- 154	2014 10	1명	0명	1명	김양 현	10037 44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2	사상학의 ‘사상 , 은 변화원리인가?	범한철학	1225 -1410	75	4	107- 130	2014 12	1명	0명	1명	최대 우	10020 687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3	여현의 선천후천설 (先天後天說) - 체 용(體用)과 경위(經 緯)의 관점에서 -	동양철학	1598 -6780	42	1	343- 368	2014 12	1명	0명	1명	양순 자	10685 179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4	의사소통의 기호적 구조	범한철학	1225 -1410	75	4	345- 368	2014 12	1명	0명	1명	노양 진	10047 941	1명	-	-	0명	1명	1	1
2014 년	25	한비자의 통치술: ‘마음 비움(虛)’ 과 ‘고요함(靜)’ 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1225 -1410	75	4	25-5 2	2014 12	1명	0명	1명	양순 자	10685 179	1명	-	-	0명	1명	1	1

2015 년	26	근원적 유한성: 하 이테거와 자기의 해 석학	1225 -1410	76	76	141- 161	2015 03	1명	0명	1명	Kim Su Rasmu ssen	‘ 11003 520	1명	-	0명	1명	1
2015 년	27	도시건축의 철학적 단상들 : 광주광역시 시의 경우	1738 -6519	29	1	335- 370	2015 04	1명	0명	1명	박구 용	10029 883	1명	-	0명	1명	1
2015 년	28	아킬레스와거북이: 가다머의? ? 이해? ? 개념	1229 -0750	71	-	77	2015 06	1명	0명	1명	Kim Su Rasmu ssen	‘ 11003 520	1명	-	0명	1명	1
2015 년	29	이제마의 격치사물 론	1225 -1410	77	여름	29-5 1	2015 06	1명	0명	1명	최대 우	10020 687	1명	-	0명	1명	1
2015 년	30	‘太極’의 미완성 된 자연화- 金錫文 의 ? 易學二十四圖 解?를 중심으로 -	1598 -6780	-	43	171- 200	2015 07	1명	0명	1명	양순 자	10685 179	1명	-	0명	1명	1
2015 년	31	공적 영역'의 상실 과 현대사회의 위기 - 한나 아렌트의 정 치철학을 중심으로 -	1226 -9379	81	3	241- 258	2015 07	1명	0명	1명	정미 라	10027 303	1명	-	0명	1명	1
논문 총 환산편수							8	2014년		2015년		총계		6	30.5		

[첨부 11-2] 최근 2년간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가 중치 (P)	환 산 편수 (P/T))*A	검 토 필	
				게재 학술 지명	학술 지 구분	e-IS SN	ISSN	권	호	쪽	연월 (YY YMM)	주 저자 수 (m)	기 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성 명	연 구자 등록 번호	수 (A)	성 명	연 구자 등록 번호	수 (B)	기타저자				총 저자 수
2015 년	국제 저명 학술 지	1	The Inconclusive Text: On Paul Celan' s “ Blume”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A&HC I	1911 -026 X	0037 -193 9	51	3	213 -224	2015 08	1명	0명	1명	Kim Su Rasm usse n	1100 3520	1명	-	-	0명	1명	1.5	1.5	V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	2014년	-	2014년	-	2015년	2015년	1.5	총계	총계	총계	총계	총계	총계	1.5	X
논문 총 환산편수				기타국제학술지	기타국제학술지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	2014년	-	2014년	-	2015년	2015년	-	-	-	-	-	-	-	-	-

[첨부 11-3] 최근 2년간 참여교수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수(T)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국어/외국어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 T)
				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YMM)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A)		구분	가중치 (S)	
2013년	국어저서	1	몸이 철학을 말하다: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서광사	978-89-306-1215-9	-	-	31	201309	1명	노양진	10047941	1	2	신간	1	2
2013년	국어저서	2	중국 현대 신유학의 자아전환	전남대학교출판부	978-89-6849-056-9	-	-	1쪽-292	201310	2명	최대우	10020687	1	2	신간	1	1
2014년	국어저서	3	정선 디가니카야	전남대학교출판부	978-89-6849-072-9	-	-	1쪽-421	201401	1명	이중표	10024474	1	2	신간	1	2
2014년	국어저서	4	철학의 이해	철학과 현실사	978-89-7775-775-2	-	-	13	201402	9명	정미라	10027303	1	2	신간	1	0.2222
2014년	국어저서	5	불교와 양자역학	전남대학교출판부	987-89-6849-148-1	-	-	1쪽-320	201409	1명	이중표	10024474	1	2	신간	1	2
2014년	국어저서	6	일계인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공간이동과 재영토화	북코리아	978-89-6324-368-9	-	-	1쪽-274	201412	3명	박구용	10029883	1	2	신간	1	0.6666
2015년	국어저서	7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	전남대학교출판부	978-89-6849-176-4	-	-	1쪽-525	201501	6명	최대우	10020687	1	2	신간	1	0.3333

2015년	국어저서	8	나쁜 것의 윤리학: 몸의 철학과 도덕의 갈래	서광사	978-89-306-2558-6	-	-	-	1쪽-271	201501	1명	노양진	‘10047941	1	2	신간	1	2
2015년	국어저서	9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전남대학교출판부	978-89-6849-171-9	-	-	-	1쪽-385	201501	1명	이중표	‘10024474	1	2	신간	1	2
2015년	국어저서	10	원측 해심밀경소의 심의식상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979-11-86178-67-6	-	-	-	1쪽-192	201504	5명	조운호	‘10025546	1	2	신간	1	0.4
2015년	국어저서	11	일계인 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문화영토	북코리아	978-89-6324-446-4	-	-	-	1쪽-239	201508	3명	박구용	‘10029883	1	2	신간	1	0.6666
총 환산편수	국어저서	2013년		3	2014년	4.8888	2015년	총계		5.3999		총계		13.2887		X	X	X
	외국어저서	2013년		-	2014년	-	2015년	총계		-		총계		-				

<제도개선 및 지원 영역>